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etoday.co.kr

제277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메타버스' 영토 확장 깃발 드는 삼성 12

'골목'서 몸집 불린 메가커피, 프랜차이즈 2위로 16

코스피(2일) 2945.27(+45.55P)
코스닥 977.43(+0.28P)
환율(달러당 원화) 1175.90(-3.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45%(+0.032%P)

"NFT·메타버스 탑승" 토스뱅크, 코인거래소 품는다

중소형사 인수 시너지 노려
금융지주사도 인수 움직임
거래소, M&A 긍정적 반응

토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부 금융지주사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인수 준비에 나서고 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태세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1면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토스뱅크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M&A(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토스뱅크는 이미 타 은행과 실명계좌 입출금계정 협약을 체결하고 거래 규모가 큰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보다 중소형 거래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후 보인 시너지 효과도 M&A 이유로 꼽혔다.

4대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며 "거래소 내에 있는 거래정보나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발급보단 인수 형식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가 일부 매물로 나왔던 중소형 거래소를 점찍자, 금융지주사들도 분주히 움직이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는 지주사 내부에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주사 내부에서 이쪽이 어떤 거래소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쪽도 목소리를 높이며 경쟁이 붙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블록체인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모두 갖추고 있는 인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며 "관련 인력이 모여 있는 곳을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M&A 카드에 긍정적인 반응을 비치고 있다.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여의치 않다고 점쳐지고 있어 현시점이 가상자산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를 털어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인수 관련 거절 의사를 밝힌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 중에서도 고팍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신고 이후면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줄다리기를 하려는 거래소들이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현재 당국 규제상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인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한·미, 북핵 대응 작계 최신화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측은 용산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
구멍난 방역… 지역 집단감염 우려

'1·2번 환자' 아들도… 누적 6명
첫 확진자 거짓진술, 115명 접촉
정부, 4단계 수준 방역조치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오미크론 4번)가 6일간 격리 없이 인천 일대를 돌아다녀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방역 구멍은 선행 확진자인 40대 부부(1~2번)가 최초 진술에서 4번 환자와의 접촉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로부터 입국해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오미크론 1~2번 환자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귀국 후 방역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4번 환자가 이동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4번 환자가 1~2번 환자와 접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지난달 29일까지 6일간 접촉한 인원은 현재까지 3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대본은 1~2번 환자에 대해선 진술 누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지난달 24일 귀국한 40대 부부와 부부 아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1명, 나이지리아 방문 뒤 지난달 23일 입국한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총 6명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분류했다.

오미크론 유입과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이틀째 5000명을 넘었다. 병상 부족에 재택치료자는 1만1107명으로 전날보다 933명 늘었다. 병상 대기자는 915명이다.

정부는 '비상계획' 검토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사적모임 제한 강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이르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다. 더불어 2주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하고, 입국 금지국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기로 했다. 4일부터 아프리카발 직항 노선을 모두 중단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SK 장동현·김준 부회장 승진… 미래사업 올인

SK그룹 정기 임원 인사
임원 67% 첨단소재·그린 분야
하이닉스 사장에 46세 노종원

SK그룹이 미래 사업 확장에 초점을 맞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과주의를 앞세운 모양새다.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를 더욱 확고히 했고, 40대 중반의 인물을 사장으로 발탁했다. ▶관련기사 3면, 인사 21면

SK그룹은 2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관계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 다만 그 내용은 SK그룹 차원에서의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관계사별로 공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각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파이낸셜 스토리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며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이사회 중심 경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수준의 거버넌스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현 부회장

김준 부회장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동현 SK㈜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전체 신규 임원의 67%가 첨단소재, 그린사업 등 성장분야 인력이었다. 각 계열사가 미래 성장 사업 인력을 대거 발탁한 것이다.

장동현 SK(주) 사장과 김준 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파이낸셜스토리 성과와 직결돼 있다.

장 사장은 첨단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인수 합병과 가시적 성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 등을 인정 받았다. 김 사장은 그린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배터리, 소재 등 신규 성장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유정준 SK E&S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아울러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 △박원철 SKC 사장 △이규원 SK머티리얼즈 사장 △이재홍 SK넥실리스 사장 △최규남 SUPEX 추구협의회 사장 등 6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신임 사장은 1975년생으로, 지난해 SK E&S 사장으로 승진한 추형욱 대표에 이어 '역대 최연소 사장'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SK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신규 선임 인원을 늘리고 최연소 사장과 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여성 임원 선임을 늘리는 기조도 이어갔다.

경영 복귀 가능성이 언급됐던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이름은 이번 인사에 오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SK온 인사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은 현재 경영상 주요 진행 사안들을 고려해 12월 중에 별도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이다솜 기자 citizen@

진위 확인 메시지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

브랜드·프로필 표시, 내년 도입

정부가 금융·공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 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형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RCS) 등을 활용해 진위 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돼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정부는 이달부터 금융·공공기관 중심으로 RCS의 도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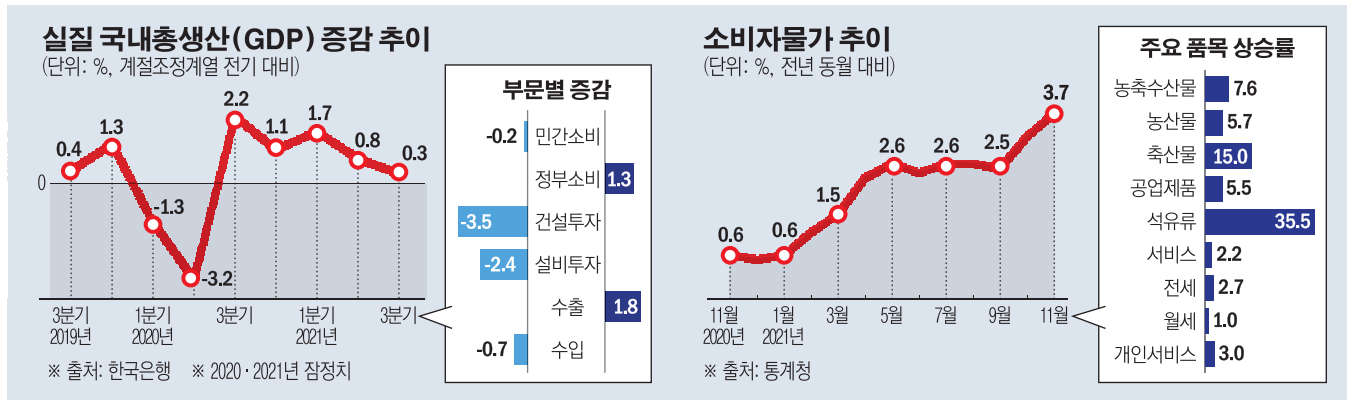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보이스피싱·스팸 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물가 치솟는데 성장은 둔화…한국경제 '먹구름'

유가·곡물·원자재 동시다발 인상
물가 3.7%↑ 10년 만에 최고치
3분기 경제성장률 0.3% 그쳐
오미크론 확산에 불확실성 커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의 지속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인 3.7%까지 치솟았다.또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치면서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41로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2.3%, 1.9% 오르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오르며 2011년 8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월 7.5% 감소했던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3% 증가로 전환됐다.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밥상 물가도 올랐다. 농산물 중 채소류는 이른 한파와 병충해에 따른 작황 부진과 김장철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9.3% 급등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중 석유류(35.5%)도 많이 올랐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고 있지만, 인하 시점과 물가 조사 시점 간 차이, 재고량 소진 등으로 11월 지표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주요 품목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가 모두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세는 12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 서비스도 방역체계 전환,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3분기 0.3%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게걸음 행보를 보였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성장했다. 이는 각각 10월 26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줄어 0.2% 감소했다. 다만 속보치(-0.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수출(1.8%)은 석탄 및 석유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속보치(1.5%)보다 늘었지만, 수입은 0.7% 감소해 속보치(-0.6%)보다 줄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 여파에 자동차 등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건설투자(-3.5%)와 설비투자(-2.4%)는 속보치(각각 -3.0%, -2.3%)보다 줄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에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송장비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4.0%) 달성은 무난하리라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4분기 중 1.03%만 성장하면 올해 4% 성장이 가능하다. 4분기 중엔 소비와 수출 흐름이 괜찮다"면서도 "다만 오미크론 변수가 튀어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올해보다도 내년 경제성장률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현 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인플레 심화에… '각자도생'하라는 OECD

G20 인플레 전망 4.4%로 상향
美 파월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
OECD "각국 경기회복 격차 커 글로벌 단일 통화정책 없다"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이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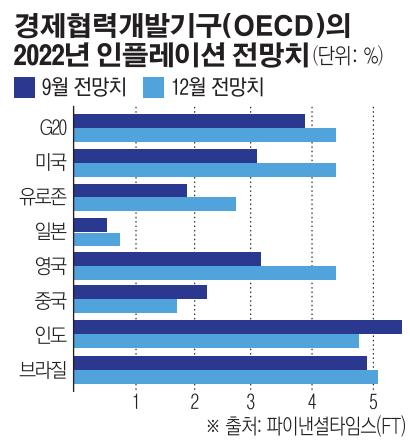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글로벌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3개월 전 대비 크게 높이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성장을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OECD는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9월 3.9%에서 이번에 4.4%로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미국과 영국으로, 양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모두 기존 3.1%에서 4.4%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로렌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이미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해 회복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이러한 시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연준은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을 180도 바꾸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며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역시 "물가가 보통에서 강한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올랐다"며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비둘기'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한 연준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달 회의에서 발표한 테이퍼링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ECD는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방침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글로벌 단일 통화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본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일부 신흥시장 경제는 선진국과 상황이 매우 달라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통화정책이란 없다"며 "미국은 유럽과도 다르고, 물가 상승률 문제가 훨씬 덜한 아시아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과 경기 회복에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성장 속도와 인플레이션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효선 기자 hsbyun@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마감임박!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마지막 신청!

'21년 12월 15일까지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직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 확대… 첨단소재·바이오 승부수

SK그룹 임원 인사

지주사 부회장급 CEO 전환
성과 중심 젊은 임원 발탁
성장 분야 인물들 전진 배치
40대 사장·30대 임원 선임 등
실적 우선 최태원式 인사 반영

SK그룹 2022년 임원 인사의 특징은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 확대 △신규 선임 임원 증가 △최연소 사장·임원 발탁 △여성 임원 선임 확대 △조직개편으로 파이낸셜 스토리 가속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장동현 SK㈜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지주회사와 중간사업지주사 모두 부회장급 CEO 체제로 전환했다.

장 부회장과 김 부회장은 유정호 SK E&S 부회장과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전문경영인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를 통해 SK㈜와 SK이노베이션은 신에너지 분야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SK E&S, SK스퀘어와 함께 지주단 위별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SK㈜는 그룹의 투자형 지주사다. 여기에 SK C&C와 최근 합병한 SK머티리얼즈가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화학, 석유개발, 윤활유, 배터리 등 SK그룹의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사다.

신규 선임 임원도 증가했다. 특히, 각 사의 ‘파이낸셜 스토리’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첨단소재, 그린(Green), 바이오, 디지털 등 신규 성장 분야에 중점을 둔 인물들을 전진 배치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선임한 임원은 총 133명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에서만 33명이 새로 임원을 달았다.

2020년 임원인사(109명), 2021년 인사(103명)보다 많이 늘어났다. 신규 선임 임원의 67%는 신규 성장 분야와 관련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연소 발탁도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에서 노종원 경영지원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1975년생으로 지난해 최연소 사장 승진에 이름을 올렸던 추형욱 SK E&S 사장과 같은 기록이다. 이재서 신임 전략기획 담당도 1982년생으로 30대에 임원을 달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공과 무관하게 실적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최태원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종원 사장, 곽노정 사장

여성 임원 선임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은 신승아 하이닉스 신임 미래기술연구원 AT 담당을 포함해 8명의 신규 여성 임원을 선임했다. 2021년도 인사(7명) 당시보다 한 명 늘었다.

SK그룹 내 전체 여성 임원 수는 27명, 34명에 이어 내년 4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임원의 약 4.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 관계사들은 미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가치를 높이는 기능과 신규사업 개발, 연구·개발(R&D) 역량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기존 전략본부를 포트폴리오 부문으로 확대 개편했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BMR 추진 담당’을 신설했다. SK㈜도 첨단소재 투자센터와 디지털 투자센터에 ‘Tech(테크) 담당’과 ‘Global(글로벌) 담당’ 조직을 각각 신설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각 사업 영역의 투자 전문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사 발표 이후 SNS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헐뜯지 마라 △감정 기복 보이지 마라 △일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면 쓰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등 ‘다섯 가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년 전 썼던 글”이라며 “나와 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K그룹 계열사들이 정기 임원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임원들의 행동지침을 조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이다솜 기자 citizen@

SK하이닉스 인사

‘사업총괄’ 사장에 46세 노종원
과감한 세대교체로 혁신 주도

안전개발총괄 곽노정 사장
MZ 우수리더 82년생 발탁

46세인 노종원 SK하이닉스 미래전략담당 부사장 겸 최고재무관리자(CFO)가 2일 그룹 인사에서 하이닉스 사장으로 승진했다. 30대 부사장과 첫 전임직(생산직) 출신 임원도 나왔다.

SK하이닉스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발표한 승진 인사에서 2명의 사장 승진 외에 29명의 담당(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사장 이하 임원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일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보고를 거쳐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사는 CEO(최고경영자) 산하에 ‘안전개발제조총괄’과 ‘사업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전사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개발제조총괄이 안전개발제조총괄로 역할이 확대됐다. 곽노정(56) 제조·기술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이 조직을 맡는다.

사업총괄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함께 미래성장 전략과 실행을 주도한다. 40대 노종원 경영지원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이 조직을 이끌게 된다.

1975년생인 노 신임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 SK텔레콤에 입사했다. 2016년 임원에 오른 지 5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SK그룹은 당시 46세이던 추형욱 SK㈜ 투자1센터장을 SK E&S 사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어 연공과 무관하게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SK의 인사 철학이 올해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인사이드 아메리카(Inside America)’ 전략을 실행해 나갈 ‘미주사업’ 조직이 신설됐다. 이석희 CEO가 이 조직의 장(長)을 겸직한다.

미주사업 산하에는 ‘미주R&D’ 조직이 함께 만들어진다. SK하이닉스는 미주 신설조직을 통해 낸드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유수의 ICT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만든다.

‘기업문화 업그레이드 TF’가 신설되고, 곽노정 사장이 이 조직의 장을 겸직한다. 각 부문의 최고책임자들이 이 TF에 참여해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에 맞게 일하는 문화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우수 인력의 조기 육성을 위한 과감한 세대 교체와 다양성, 포용성 관점에서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 임원 인사에서 최초의 전임직 출신 임원으로 손수용 담당을 배출했고, 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으로 신승아(44) 담당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우수리더로 82년생 이재서 담당 등을 발탁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기업으로서 글로벌 ICT 기업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오미크론 확진〉

‘4번 환자’ 300명 모인 예배 참석… 수도권 ‘초긴장’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39명
역학조사 결과 따라 수백명 가능성

인천, 서울-경기 생활권과 겹쳐
수도권 전역으로 유행 번질 수도

방대본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땐
접종완료자도 예외없이 격리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1~2번 확진자인 40대 부부의 허위 진술에 엿새간 ‘방역 구멍’이 발생했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번 환자(남편)와 2번 환자(부인)는 10월 28일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이들은 선교활동을 위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후 2번 환자의 지인인 4번 환자(30대, 외국인)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도왔다. 하루 뒤 1~2번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격리됐다.

하지만 1~2번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4번 환자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역학조사에서 1~2번 환자가 방역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4번 환자는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주지인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지난달 28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제보가 인천 미추홀구에 접수됐다. 당일 예배 참석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번 환자가 격리된 건 1~2번 환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접하고 검사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9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번 환자의 접촉자는 39명인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백 명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4번 환자의 접촉자 중 확진자는 부인(5번)과 장모(6번), 지인(7번)이다. 이들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4번 환자의 확진과 함께 격리돼 접촉자는 제한적이다.

관건은 지역사회 유행 여부다. 일반적인 코로나19 잠복기(5~7일)를 고려할 때 4번 환자가 격리 전 전파력을 가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4번 환자가 예배에 실제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생활권이 겹쳐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하다. 이 때문에 4번 환자로부터 전파가 이뤄졌다면, 삽시간에 수도권 전역의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 1~2번 환자의 진술 하나에 방역체계가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재택치료 모니터링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4번 환자의 접촉자들이 모두 확인·관리돼도 문제는 남는다. 1~2번 환자의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제3국을 통한 오미크론 유입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격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미크론 발생·인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미확진 상태로 관리가 종료된 감염원이 존재한다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1~2번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관리가 종료되기 전 확진된 경우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국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해 관찰하도록 하겠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시켜 격리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더이상 환자 감당 못해”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수도권 중증 병상가동률 88.1%
대전·세종시는 남은 병상 없어
방역당국 ‘부스터샷 참여’ 독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탓에 의료대응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중증환자가 733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전날보다 47명 늘었다. 통상 코로나19 사망자는 위중·중증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사망자가 늘면 위중·중증환자는 줄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두 지표가 함께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증에서 위중·중증으로 악화하거나, 발병 초기부터 위중·중증인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병상 여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수도권에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88.1%,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9.4%에 달하고 있다. 병상이 부족한 건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확보 병상 자체가 부족한 탓에 위중·중증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이 소진되는 상황이다. 시·도별 가용 중증환자 병상은 대전과 세종이 0개, 충북은 1개, 충남은 4개, 경북은 3개다. 준중증환자 병상도 이천과 전북, 전남에는 1개씩만 남았다. 경북에는 가용 병상이 없다.

감염병 전담병상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행정명령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중증환자 병상 50여 개 등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는 상황에선 이조차 부족하다.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2일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건강관리세트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서울은 345개 병상 중 311개가 사용돼 90.1%의 가동률을 기록하자 자체 비상의료·방역조치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2688개 병상에서 1411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상은 서울시립병원을 통해 193개 더 늘리기로 했다.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급증에 방역당국은 추가접종(부스터샷)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중증환자 상당수가 기본접종 완료 후 면역 효과가 떨어진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추가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 효과를 11배, 위험 예방 효과를 2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추가접종만 원활히 이뤄져도 위중·중증환자 규모와 병상 여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가접종 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연령대별 추가접종률은 80세 이상이 39.2%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추가접종률이 한 자릿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말 대목 기대했는데” 자영업자 다시 ‘한숨’

확진자 급증에 모임 취소 잇따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해야” 호소

연말을 앞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미크론에 따른 방역 강화 분위기와 거리두기 강화 등 조치로 다시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던 식당 등은 더 난처해졌다.

서울 종로구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47)는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연말모임을 취소하는 통화만 5건 넘게 받았다”며 “어제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한 달간의 꿈을 꾼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그동안 정부만 믿고 정책 다 지켰는데 매출만 줄어들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모 씨(39)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 직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냐며 “알아서 방역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맨날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난으로 시급을 올려 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방역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책 회의에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아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방역 정책을 멈춰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대책 발표를 기다려 보겠지만 대통령의 언급처럼 위드 코로나를 뒤로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심민규 기자 wildboar@

‘열흘 격리’에 여행 줄취소… 여행업계 ‘직격탄’

12월 여행상품 취소 요청 폭주

정부의 긴급 방역 강화 조치로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모처럼 되살아났던 해외여행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여행업계의 수심이 깊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11번가의 해외 항공권 예약 취소율이 직전 2주 대비 1.5배 증가했다. 일부 여행사와 항공권 판매 업체는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과 판매 취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세가 큰 유럽의 경우 다음 주에 출발하는 상품 중 일부를 취소한 상황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이달 16일까지 귀국하는 여행상품은 모두 무료로 취소해 주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12월 해외여행 상품 출발 예정인 고객들은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노랑풍선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한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줬었다. 여기에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괌, 사이판, 유럽 등을 목적지로 한 기획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며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계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 주의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발생하자 3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0일간 격리 조치를 내렸다.

여행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년 전 경영 악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천재지변’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아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사가 여행객들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줘도 항공사, 호텔에서 취소 위약금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지난해 팬데믹 때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여행업계가 2년간 정부에 해외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여행업협회는 각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군은 여행업계인데,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손실보상법 대상자도 아니어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라며 “국내 여행사 대부분 해외여행 패키지를 운영하는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소희 기자 ksh@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 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글 싣는 순서〉
㊦ ‘청년이 없다’ 늙어가는 지방
㊥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
㊧ 전문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
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
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
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프라였다. 지방에도 명문대, 명문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 등으로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대안으로는 특화·거점대학 지원·육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 역량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여부·규모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원 대학의 재정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은 교육 기능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도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또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력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지원하는 걸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데, 거꾸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에 더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경남 거창군의 거창고, 충남 공주시의 한일고 같은 지방의 일부 사립고는 서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역유학’을 하기도 한다. 지방대학 또한 그렇게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안은 400여 건이다. 방향은 지방대학을 특화·거점대학으로 육성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이기도 하다.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등 미래산업 연구중심 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수소 학생만 모집하는 전문훈련 대학 등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내놓는 대학들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개발하듯 재정 투입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 학생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발간한 ‘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연계·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거점형 국립대 통합과 공공형 사립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점 국립대 통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근 국립대를 통합하고, 통합 국립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국립대 간에도 서열이 존재하고, 국립대 통합 시 일부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해 현실성은 떨어진다. 공공형 사립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사립대학 운영 경비의 일정분을 지원하고,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연구비 전용·횡령 등 사립학교재단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행정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대안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일부에선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등록금이 낮다는 것이 수험생에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등록금으로 학생을 유치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고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손현경 기자 son89@·박준상 기자 joooooon@

대학교 소재지별 취업자 특성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일반대학교(4년) 전체 졸업자 31만7202명의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학교 소재지	계열 구분	임금 근로자 비율	정규직 비율	전공일치 비율	교육수준 일치비율	300인 이상 업체 취업비율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
수도권	인문	96.1%	64.3%	28.2%	61.5%	29.5%	4.5개월
	사회	96.4%	73.9%	44.5%	60.2%	34.2%	4.5개월
비수도권	인문	97.1%	51.3%	27.8%	61.5%	13.4%	5개월
	사회	96.6%	68.0%	38.4%	62.9%	17.1%	5.1개월

대학교 수도권·비수도권 고용률

대학교 수도권·비수도권 월평균 소득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한계 인프라 기반 ‘삶의 질’ 충족을”

‘젊은 지방’ 최우선 과제는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
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
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자리 문제는 지방대학 육성만으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그곳에 얼마나 인적 자원, 즉 인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방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들의 일자리도 결국에는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인프라다. 단순히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들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이나 주택 공급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만 집착하게 만든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데려오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제2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듯, 청년들에게 지방으로 오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은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도 일정 부분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인 2014~2015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유입이 줄고, 2018년에는 유출로 전환됐다.

주된 이유는 과도한 공공기관 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패다. 혁신도시가 대규모 공공인프라와 생활필수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둔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인구가 확보돼야 하는데, 너무 많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바람에 인구 분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가 거점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 산단도 상황이 비슷하다. 입지 비용 문제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탓에 인근 지역이 생활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이미 건설된 것을 다시 합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도로를 건설해 이동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해외주식 갈아탄 개미들…美 폭락에 또 루저되나

개미, 올해 해외서 220조 매수

국내 증시서 재미 못보자

테슬라·아마존 등 집중 매입

오미크론에 미국도 큰폭 하락

손실 눈덩이 우려 '좌불안석'

4년 차 직장인 이모(32) 씨는 최근 근무 시간에 졸다가 상사에게 핀잔을 들었다. 그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주식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3시간도 못 자고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이 씨는 하반기 코스피(KOSPI)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2의 테슬라'를 잡겠다는 생각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가 오르고 내려서 눈을 뗄 수가 없다"며 "마음 졸이고 사느니 차라리 손절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동시다발적 악재(원자재 공급, 미국의 긴축, 인플레이션 우려 등)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출렁이면서 올해 들어서만 해외 주식을 220조 원 넘게 순매수(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것)한 서학개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에서 1884억 4551만 달러(1일 환율 기준 약 220조 2149억 원)어치를 결제했다.

이 중 상당수는 국내 증시에서 손을 털고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길을 돌린 동학개미로 파악된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서학개미화'로, 커져가는 국내외 시장 간 수익률의 격차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3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미국 증시는 S&P500지수는 약 9%가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은 10월 5일 약 70조 원을 기록한 후 11월 30일 기준 약 66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외화증권 예탁결제 보관 금액은 1020억9400만 달러(120조1899억 원)로 지난해 12월 31일 722억1700만 달러 대비 약 41.3% 늘었다. 외화증권 예탁결제 처리금액도 11월 223억9000만 달러를 기록, 3월 225억2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좌불안석'에 놓이게 됐다. 오미크론과 미국의 통화 정책 사이에서 해외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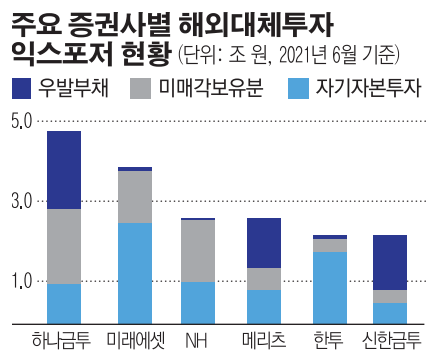
뉴욕증시는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34%, 1.83% 하락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내림세다. 지난달 해외주식 순매수 보관·결제 규모 1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오미크론 출현 소식 이후 전날까지 1.88% 떨어졌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는 지난달 24일 2922.40달러에서 1일 2821.03으로 3.46% 떨어졌다. 아마존닷컴도 지난달 24일 3580.41달러에서 1일 3443.72로 3.81% 내린 상태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종가 161.94달러에서 1일 164.77로 1.74% 오르며 선방했다. 26일 3.17% 급락했으나 이틀간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도 부담이다. 연준은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월 150억 달러로 예정된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해외 대체투자 부푼 꿈



8개證 리스크 노출액 20조원

자기자본 총계 대비 42% 달해

코로나로 현지실사 여의치 않아

투자수익·확대에 부정적 영향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여파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던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초대형 증권사는 풍부한 자본력, 완화한 자본규제를 바탕으로 해외 대체투자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위험이 높아진 데 이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자산별로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8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된 금액)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19조8000억 원으로, 자기자본 총계 대비 42.4%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4조 7000억 원), 미래에셋증권(3조8000억 원), NH투자증권(2조6000억 원), 메리츠증권(2조6000억 원) 등으로 절대 수치가 높았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93.8%)가 가장 높았고, 메리츠증권(54.6%), 신한금융투자(43.8%), NH투자증권(43.6%) 순이었다. 초대형 증권사가 투자한 해외 대체투자 형태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투자가 42.6%, 미매각 보유분이 34.5%, 우발부채 22.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미매각 보유분이 급증했다.

만약 셀 다운(재매각)이 지연되거나 유동성 공여 약정 등이 실행돼 증권사가 미매각분을 안게 되면 증권사는 투자위험, 미매각위험, 우발부채 현실화 위험 등에 노출된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미매각 보유분 비중이 각각 84.2%, 58.8%로 가장 높았다.

초대형 증권사의 건전성 저하 자산은 2조600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 12.9%가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거나 원리금·배당 연체가 발생했다. 올해 초대형사 건전성 저하 주요 원인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로 꼽힌다. 특히 건전성 저하자산 65% 이상을 차지하는 호텔·항공기 관련 업종에 대한 수요 회복이 미진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선임 연구원은 "올해 6월 말 초대형사 해외 대체투자 평균 익스포져는 2조5000억 원으로, 자기자본 1~4조 원 대형사 평균(2000억 원)의 10.3배에 달한다"며 "해외 대체투자 환경이 악화될 경우 초대형 증권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대체투자를 둘러싼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낙관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 테이퍼링 시행으로 투자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물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실사가 어려워진 점도 익스포저가 늘어난 이유로 제시된다.

이인아 기자 ijh@

코로나에 '적색 신호등'

공급 차질에 주가 정체된 현대차·기아

국내외 판매 부진에 주가 발목

"공급 이슈, 점진적 해소 주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발목 잡힌 현대차·기아의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급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의 11월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11.4%, 해외는 18.4% 줄었다. 기아도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13.3%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8.9%, 해외는 14.3% 감소하면서 해외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판매 부진은 공급망 차질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정점을 찍었던 9월보다는 생산과 판매가 모두 양호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 정상화에 나선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회복이 더뎌졌다는 분석이다.

느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실적과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해외 중심으로 판매 대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익 전망치 하향 요인이 발생했다"며 "평균판매가격(ASP)에 대한 기존 가정치(4분기 현대차 672만 원, 기아 704만 원)를 단순 적용할 경우 각각 -1204억 원과 -739억 원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경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다. 올해 초 연고점을 찍었던 현대차(26만7500원)와 기아(10만1500원) 주가는 반도체 수급 이슈가 불거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탔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현대차 주가는 14.20% 내렸다. 같은 기간 기아는 8.83% 떨어졌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 뒷받침할 것"

정은보, 자산운용CEO 간담회

"자산운용사들이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일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업계의 합병과 특화·전문운용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상품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혁신상품 심사에 신속처리절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사모 신기술조합 등과 비교할 때 불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검사 기조로 제시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운용산업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리, 자산가격 등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하는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취급하는 관행이 업계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며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운용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사모 신기술조합 등과 사모펀드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운용업계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가 참석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NFT株 폭등에…올들어 게임사 오너들 '돈방석'

위메이드 박관호 지분가치 2.9조

펄어비스 김대일은 3조로 급증

식을 줄 모르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열풍 덕분에 게임 회사 오너들의 지분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의 지분평가액은 지난달 30일 2조9225억 원으로 1월 초(2948억 원)보다 2조6277억 원(891.3%) 증가했다. 주요 상장기업 오너 가운데 지분평가액 증가폭이 매우 큰 편에 속했다. 위메이드 주가는 올 들어서만 922.2% 뛰었다. 1월 4일 종가 기준 1만 9272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지난달 30일 19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이 덕분에 위메이드 지분 44.5%(1483만538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 의장의 지분평가액도 급증했다. 위메이드 주가가 급등한 것은 NFT 사업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 회사는 3월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NFT 거래시장 참전을 공식화한 뒤 주가가 상당 기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여기에 게임 미르4의 성공, 위메이드트리 흡수합병, 전략적 투자에 따른 메타버스 사업 강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김대일 펄어비스 이사회 의장의 지분평가액도 같은 기간 1조2261억 원에서 3조1018억 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152.98%(1조8757억 원)에 달했다. 김 의장은 펄어비스 지분 35.5%(2355만2510주)를 갖고 있다. 펄어비스 주가는 올 들어 30일까지 161.3% 뛰었다. 최근 주가 흐름도 강세다.

박상재 기자 sangjae@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나의 생활을 더욱 나답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 마이데이터

흩어진 나의 금융정보를 모으면 자산관리는 쉽고 생활의 혜택은 커집니다

WON
MyData

통합 자산 관리
나의 모든 자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

소비 관리
카드비, 통신비 등 나의 모든 지출을 진단, 관리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

맞춤 추천
마이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1:1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서비스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 마이데이터 오픈 이벤트
12월 오픈기념 푸짐한 경품 이벤트에 꼭 참여하세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N뱅킹 app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숨은 잔액 찾아 구입한 카메라', '특가알림 서비스로 득템한 항공권' 은 개인별 소비 예시로 작성되어 「우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 2021.11.26 준법감시인-8928 심의필 (2022.12.31)

李 "영입인사 대표성 지적 있어" 이준석 "尹 주변에서 날 모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선대위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매머드급 선대위의 복잡한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발표식에서도 "국민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 정책을 반영해서 작게라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기존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통합했다. 6개 본부에는 △총무(김영진) △전략기획(강훈식) △정책(윤후덕) △조직(이원욱) △직능(김병욱) △홍보(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이 있다.

특히 본부장 6명 중 유일한 외부인사인 MBC PD 출신의 김영희 홍보본부장에게 이목이 쏠렸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 측에서도 김영희 PD를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을 선택한 건, 사실 아주 복잡한 갈등을 겪었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금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이번 대선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대위가 쇄신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외부 인재영입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국방·우주 관련 경력, '30대 워킹맘' 등 이력을 갖춘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야심차게 수혈했지만, 뜻하지 않게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또 '청년 과학인재'로 영입된 김윤이 씨는 선대위 합류 전날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한 팀원은 이 후보를 향해 "청년에게 박탈감만 안겨준 인재영입 말고 납득할 만한 인재영입을 부탁한다"며 "이번 영입 인재들이 '과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가, 어필할 수 있는 청년 인재인가'에 대해 솔직히 비판 여론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홍보부문에 野 러브콜 받던 김영희 PD
쇄신 인재 '조동연 사생활 논란' 등 발목

이 후보는 "안 그래도 어제 4명의 2030 인재를 영입하고 받은 메시지 중에 그런 게 꽤 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아니냐, 평범한 다수를 대표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한 강훈식 전략본부장을 향해 "이런 게 전략본부에서 전략으로 만들 내용이다. 전략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자 강 본부장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잠행 사흘째 이준석 "尹, 인사 조치를"
여순, 4·3 제주서 김종인 영입 메시지

사흘째 잠행을 이어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침묵을 깼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의 잠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잠행이 윤 후보를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표가 잠행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윤 후보에 대한 선대위 인사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일 윤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은 지난달 30일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에 대한 측근 정치 불만 표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내부 전언이다.

이 대표는 2일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변 측근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윤 후보 주변에서)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라며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거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거로 본다"고 경고했다.

잠행에는 김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라는 간접적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동선을 보면 부산 이후 순천과 여수를 찾아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과 만났고 2일엔 제주도를 찾아 4·3 유족회와 간담회를 했다. 과거 김 전 위원장이 여순사건과 4·3 사건 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행보에 의미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다.

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만큼 위기를 빨리 당겨 나중에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차피 이기려고 하면 지금 흔들어야 하는 게 맞긴 하다. 그런 자극 없이 흐지부지 가서 30일 정도 지나 버리면 반전 추세를 갖기도 쉽지가 않다"며 "내림세를 찍을 거면 팍 찍고 드라마틱한 계기를 바탕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의 행보에 당내 중진들은 불안함을 드러내며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도동망(共倒同亡) 할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부터 사람을 나누고 잘 아우르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한미, 용산 연합사 내년 평택 이전 합의

북핵 대응 작계 최신화…대만 첫 명시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방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또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CM에서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 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졌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총수家 미등기 임원 176명…"책임 피하며 수백억 보수"

이재현 CJ 회장 1년간 123억 받아
54% 일감몰아주기 우려 기업 재직
등기이사 10명 중 7명 공익법인에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등재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등 자신들의 소유 지분이 높은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경영책임이 없는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2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집단 71곳 중 쿠팡 등 신규 집단 8곳과 농협을 제외한 62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18곳의 작년 5월 1월~올해 4월 30일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등이다.

총수 있는 54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2100곳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96건(54.5%)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3.6%)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보수와 관련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 ENM, CJ제일제당 등 5곳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등기이사 등재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3곳)의 56.3%(120곳), 사각지대 회사(359개)의 20.9%(75곳)에 각각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7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7곳) 및 사각지대 회사(13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7.6%에서 올해 70.4%로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9.2%)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만큼 내년에 준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사회적기업은 '산타' 산타로 분장한 사회적기업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경남 거창군 신원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과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수업을 마친 후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 거창군

KDI "보험사 부실 커진다 예금자 보호 한도 올려야"

"한도 5000만원→1억 확대
보험료 보호 대상 규정 신설"

보험사 부실에 대응해 보험에 대한 예금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방안(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 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말 MG손해보험은 자본비율(97.04%)이 최소기준치(100%)에 미달했으며, 과거 부실 보험사였다가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0% 급감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추가 악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7~8월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보험 가입자(91.9%)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가입자의 40.2%는 해지환급금뿐 아니라 보호대상이 아닌 보험료도 5000만 원 한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부 보험료는 많지만 해지환급금은 적은 무해지·저해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무너졌을 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연간 판매 건수는 400만 건에 달하지만, 무해지·저해지 보험 가입자의 86.5%는 보험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KDI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대상은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또 1989년 이후 한도 조정이 없는 보호한도(5000만 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예금자의 90~95% 전액 보호'라는 국제예금자보호기구(IADI)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적정 보호한도는 1억 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與 한시적 유예 검토에 반기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도 등을 이유로 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소방안전' 만족도 가장 높고 검찰 꼴찌

정부 활동 대국민 인식 조사

정부 기능 가운데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에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는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만족도는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은 2.96점으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 경찰은 4.19점을 받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수소·태양광·풍력 등 197개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한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대 분야 197개의 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발표회를 열었다.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일정,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3대 분야는 △청정연료 발전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전력계통 △섹터 커플링 △에너지 저장 △그린수소 △산단건물 △자원순환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에너지 설비 △정유다.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선 △발전용 수소 터빈 기술 △연료전지 기반 MW(메가와트)급 복합발전 시스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전지 △20MW 해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은 국제협력 수요가 높은 태양광·풍력·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6개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점 협력 대상국과 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일례로 풍력 분야는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으로 확보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중점 협력국으로 덴마크·네덜란드·독일·미국 등을 꼽았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한계 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형 통합형 R&D(연구·개발) 도입, 국제공동 R&D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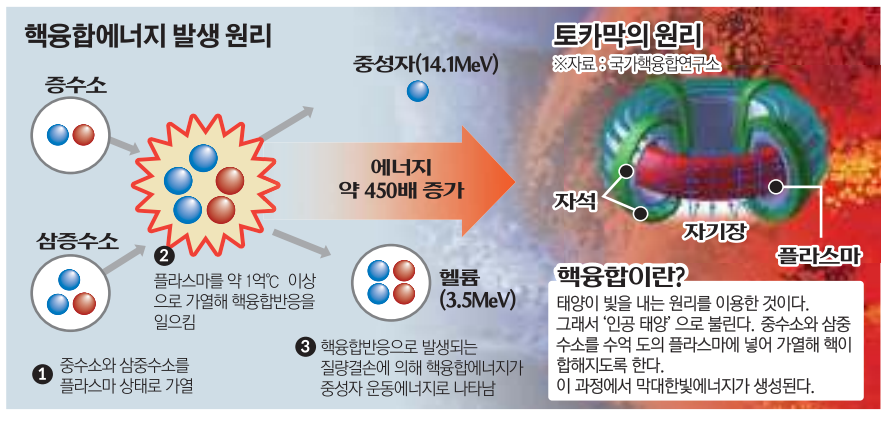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핵융합 스타트업〉

‘핵융합’ 꽂힌 코먼웰스퓨전에 ‘뭉칫돈’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태양에너지 원리, 탄소 배출 안 해
글로벌 큰손, 관련 스타트업 베팅
코먼웰스퓨전, 2.1兆 최대액 조달
“단기 성과 힘들어” 회의론도 제기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뜨고 있다. 글로벌 탈탄소 추세에 핵융합 발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대란도 무한 공급이 가능한 핵융합 발전의 ‘몸값’을 올렸다. 글로벌 ‘큰손’들도 관련 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핵융합으로 실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 코먼웰스퓨전시스템스는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18억 달러(약 2조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핵융합 분야 투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더 주목받는 것은 투자자 ‘라인업’이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구글과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큰손’들이 자금을 댔다. WSJ는 핵융합이 미래 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너지 원리를 모방했다. 태양은 플라스마(양 혹은 음으로 이온화된 기체)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해 빛과 열에너지를 뿜어낸다.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라 부르는 이유다. 핵분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소와 반대 원리로, 방사성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연료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한다.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다. 삼중수소는 리튬과 중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만든다. 연료를 구하기 쉽고 자원도 무한하다.

‘꿈의 에너지’이지만 아직 누구도 완성형 기술을 내놓지 못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력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핵융합 발전에 민간기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발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는 국제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다. 프랑스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 규모만 220억 달러에 달한다. 2025년 말까지 ‘과가열 플라스마’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이후 10년 뒤로 보고 있다.

코먼웰스퓨전의 밥 멈가드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공상과학으로만 여겨졌던 핵융합이 불가능에서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바뀌었다”며 “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순수 에너지 융합 기계(net-energy fusion machine)’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론도 있다. 핵융합이 실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최소 20~30년 걸릴 수 있어 단시간 내 전력원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출신의 대니얼 재스비는 “최근 민간 부문에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무도 핵융합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다”며 “현실이 되기까지 많은 것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세계 에이즈의 날’ 백악관에 걸린 ‘빨간 리본’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세계 에이즈(AIDS)의 날’을 기념하는 ‘레드 리본’이 걸려 있다. 레드 리본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HIV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어떤 에이즈 환자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많은 환자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편견을 사회에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EU ‘일대일로 견제’… 400兆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동

민관합동 개도국 인프라 투자 시행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400조 원가량을 쏟아부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해외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틀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3000억 유로(약 400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은 디지털, 건강, 에너지, 교육 등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높은 품질과 투명성, 우수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매우 신뢰할 만한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며 “이를 통해 유럽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양질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세계를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는데,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2013년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중국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과 연결해 글로벌 투자 중심으로 서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포부가 담겼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해 약 1400억 달러(약 165조 원)를 전 세계에 투자했고, 그중 200억 달러 이상이 지난해 집중됐을 만큼 최근 들어 투자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빌미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을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U가 지속 가능한 지원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일대일로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실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를 종단하는 고속철 사업을 최근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도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G7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전 세계 5~10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이르면 이달 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기자 kodae0@

中, 해외 우회상장 금지 계획… 美 IPO 사실상 차단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과 디디추싱 등 많은 자국 IT 기업들이 썼던 변동지분실체(VIE)를 통한 해외증시 우회 상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1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활용해온 허점을 중국 당국이 차단함으로써 해외 우회 상장을 막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당국이 현재 마련 중인 기업 해외 상장 규정 초안에 담겨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만 VIE를 통해 홍콩증시에서 기업공개(IPO)하는 것은 당국 승인을 거쳐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중국 IT 기업들이 선호했던 미국증시 상장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VIE는 그간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던 방식으로,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디디추싱 등도 이 방법으로 뉴욕에 상장했다.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면 중국 규제 당국은 IT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견제해 왔다. 특히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허락 없이 뉴욕증시에 입성한 후 줄곧 IT 기업의 해외 활동 감시를 강화했다. 7월부터는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정부 승인을 필수로 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트위터 떠난 잭 도시 ‘본색’ 사명 바꾸고 ‘코인 본업화’

스퀘어→블록 사명변경
사표 이틀 만에 첫 행보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

잭 도시(Jack Dorsey)

소셜미디어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가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떠나자마자 겸임하고 있던 전자결제서비스업체 스퀘어의 사명을 변경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스퀘어는 회사명을 블록(Block)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름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상장 코드명은 기존 ‘SQ’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스퀘어의 비트코인 전담 사업인 스퀘어크립토도 ‘스파이럴(Spiral)’로 이름을 바꾼다.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업체 국한된 지금의 사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스퀘어 측은 “블록이란 이름은 블록체인 사업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블록으로 구분된 도시 지역 비즈니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함께 듣는 소규모 모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블록)을 해결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시 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판매자 비즈니스를 위해 스퀘어란 브랜드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회사는 ‘블록’이란 새로운 이름을 갖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도시 CEO의 야심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명 변경은 도시가 지난달 29일 트위터 CEO에서 사임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주요 외신과 업계에서는 도시가 트위터 CEO 사임 이후 비트코인에 더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 CEO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자다. 그는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 트위터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나에게 있어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시는 지난 6월 스퀘어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회사 블록스트림의 태양광 채굴 사업 부문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스퀘어 캐시앱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도 개시했다. 최근에는 스퀘어를 통해 탈중앙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퀘어는 이미 2억2000만 달러(약 259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퀘어는 도시 CEO가 사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트위터에서 퇴출된 이후였던 2009년 공동 설립한 회사다. 스퀘어는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로 출발해 현재 P2P 디지털 뱅킹과 소기업 대출, 가상자산·주식 거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후에는 후불결제 서비스 업체 애프터페이(AfterPay)와 미국 유명 랩 스타 제이지(Jay-Z)의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타이달(Tidal)을 인수하며 사업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인지도 면에서는 트위터가 스퀘어보다 더 높지만, 기업가치는 스퀘어가 트위터를 훌쩍 넘는다. 이날 기준 스퀘어의 시가총액은 약 897억2000만 달러로, 트위터(342억400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산업銀 선임부행장制 폐지…힘빠진 '뉴딜 금융'

지배구조규범 개정…1년 만에
수석 선임 투톱서 전무체제로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등 신규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선임부행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은은 지난달 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선임부행장의 정의를 삭제했다. 기존 산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 3호에서는 "집행부행장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부문을 총괄하도록 이사회에서 지정된 자를 선임부행장이라고 한다"고 정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선임부행장 정의를 아예 삭제해버린 것이다. 선임부행장의 업무는 제도 도입 이전처럼 전무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선임부행장은 각 1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타 집행부행장과 달리 산업은행 총 9개 부문 가운데 기업금융, 글로벌사업, 자본시장, 심사평가 등 4개 부문을 총괄한다. 산은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임부행장 제도를 시행해 신설 직위에 당시 최대현 기업금융부문장을 임명한 바 있다.

산은의 결정에 대해 당시 업계에서는 산은이 맡은 방대한 업무에 대해 사실상 수석부행장과 선임부행장이라는 '투톱' 책임자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은은 당시 선임부행장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으로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신산업·혁신기업 지원 등 신규 정책금융 업무량 확대를 감안, 경영진의 적정 업무분담 등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산은이 단기간에 직제개편을 재실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임부행장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선임부행장 제도를 도입한지 불과 1년만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직제개편을 자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이는 가상자산거래소…관건은 '업종 해석'

'특금법'상 금융사 기준 모호
당국 "은행법상 투자 불가능"
일각 "규제·조율 과정 필수적"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추후 획득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가 제한적인 만큼, 선점 작업에 나서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비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류도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교환·이전·보관·관리 등 일련의 행위를 금융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투자법 등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15% 이상의 지분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할 경우, 거래소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해 규제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의)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ISMS 인증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 전후 등으로 계속해서 라이센스를 얻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물밑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기류를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금융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법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정확한 코멘트를 줄 수 없다"라고 거리를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업비트와 코빗 등이 금융업계와 잇단 투자를 성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를 확보했다. 코빗 또한 지난달 29일 SK스퀘어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SK스퀘어가 코빗의 지분 35%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가는 형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금융업 등이 교류하면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인증받은 거래소를 인수하는 게 편하다는 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은행이나 지주사들까지 나서서 돈을 들고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명백한 유인이 있으니 규제가 있다면 우회하는 방식도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FIU의 규제 기조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금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국과 교감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허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기조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 NFT·메타버스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없어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은행은 누군가가 신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두 비슷하게 따라오는 만큼, 선점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나 한국조폐공사 등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거점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빼고 스터디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금융감독체계 소비자보호 강화로 바뀌어야"

금융·재무학회 등 심포지엄
"금융산업 성장 앞세운 정책
소비자 피해 양산…개편 시급"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통합 관장이 국가 위험관리 약화를 초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금융산업 성장을 앞세운 감독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견제와 균형 측면 △효율성 측면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으로 나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견제와 균형 측면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하는 것이다. 현 체계는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여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약화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효율성 측면으로는 현재와 같이 수직적, 이원적 구조다. 다만 이는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여서 양 기관의 역할이 혼선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규제 감독 권한의 금융위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예산편성, 재원 확보의 자율성의 장점이 있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정부부처인 금융위로부터 광범위한 통제를 받아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다. 한국은행과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 등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기본방향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국내외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정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지연 기자 sjy@

21대 국회발의 법안 주요 내용 비교

	오기형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조직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통합형 체제 금감원에 금융위 설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원
	공적 민간기구, 법인격, 독립성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금감위의 지도감독, 금융감독원 설립
	9인	9인
	원장-위원장 겸임	위원장-원장 겸임
소속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설치) 금융소비자위원회(금감원에 설치)	금소위에 증권선물위원회 설치
법령제개정권	기재부가 행사·제개정 요구 합의권	기재부가 행사·사전 협의의무, 제개정폐 지요구권
감독기구간 견제와 균형	—	금융안정협의회(국무총리 소속)

외국계도 동참…SC제일은행, 예·적금 금리 최고 0.4%P 인상

퍼스트정기예금 등 이율 변경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고 0.4%p(포인트) 인상한다.

지난달 25일 기준금리가 기존 0.75%에서 1%로 0.25%p 인상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린 데 이어 SC제일은행이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이다.

SC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1일 "시장금리에 맞춰서 수신금리를 올렸고, 일부 상품은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의 수신상품 금리 인상방안은 이날 늦은 오후 최종 결정돼 공지됐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퍼스트정기예금, 퍼스트재형저축, 제일안전예금(RP), 퍼스트표지어음, 더블플러스통장 등 일부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이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정기예금, 퍼스트재형저축의 경우 1년 기준 세전금리가 현행 0.85%에서 1.15%로 0.3%p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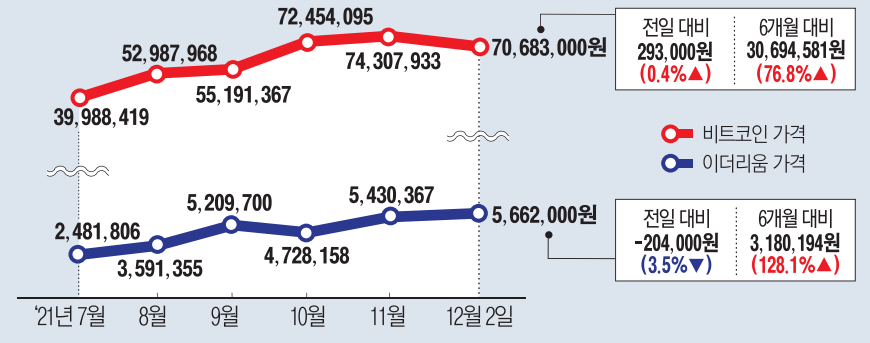
SC제일은행은 이달 3일에는 e-그린세이브예금, 6일에는 일반정기예금, 홈앤세이브예금, 드림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두드림적금,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자유적립식) 등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용상품인 e 그린세이브예금의 경우 12개월 기준 현행 금리 1.30%에서 1.70%로 최고 0.4%p 인상된다.

거치식 예금인 드림정기예금과 홈앤세이브예금은 각각 최고 0.25%p 금리가 인상되며 일반정기예금은 0.30%p 금리가 올라간다.

김유진 기자 eugene@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1년 12월 2일 17:0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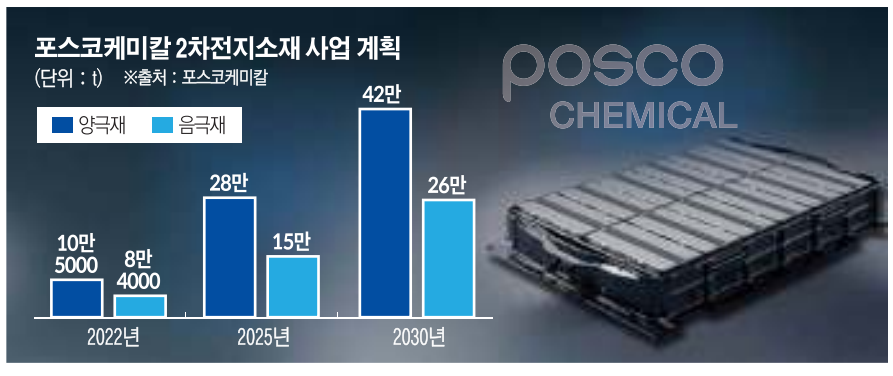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699,500	-7,000 (1.0%▼)	이오스	4,902	-98 (2.0%▼)
리플	1,210	-37 (3.0%▼)	트론	120	-1 (0.8%▼)
라이트코인	254,100	-11,100 (4.2%▼)	스텔라루멘	410	-14 (3.3%▼)
에이다	1,919	-54 (2.7%▼)	비트코인에스브이	182,800	-2,600 (1.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동맹… 배터리 역량 풀충전

합작사 세워 북미 공장 설립 추진
2024년부터 하이니켈 생산 돌입
LG엔솔-GM 합작법인에 공급

포항에 국내 첫 음극재 공장 준공
이차전지 핵심소재 2종 국산화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합작 사업에 나선다. 양극재란 배터리 소재 가운데 하나로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소재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도 준공해 배터리 소재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2일 GM과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해 북미 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새 합작법인은 2024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 '얼티엄셀즈'에 공급한다. 얼티엄셀즈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이다. 투자 규모와 공장 위치 등의 상세 계획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업체 중 처음으로 자동차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와 합작사를 만들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북미에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얼티엄셀즈의 양극재 공급사로 선정됐다. 이후 연산 6만 톤 규모의 공장을 광양에 건설 중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북미 공장까지 더해 대규모의 양극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2019년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와 테네시에 각각 연산 3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0년대 중반까지 2개의 배터리셀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자동차사를 파트너로 삼아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며 북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합작투자를 발판으로 북미, 유럽, 중국 등에 글로벌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포스코케미칼이 GM의 파트너가 된 것은 포스코 그룹이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 소재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분 인수,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립 등 배터리 소재 사업의 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2년 10만5000톤의 양극재 연간 생산능력을 2025년 28만 톤, 2030년 4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시 동해면 블루밸리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포스코케미칼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총 2307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공장이다. 2023년 종합 준공을 목표로 연산 1만6000톤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준공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은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우선 생산한다. 이는 60kWh(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21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충전속도를 단축하는 강점이 있어 2020년 기준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생산 기업이 없어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다.

이번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천연흑연·인조흑연 음극재 모두를 국산화해 경쟁력 있는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이다솜 기자 citizen@

메타버스 영토 확장 속도 내는 삼성

NFT 기반 플랫폼 '오프' 투자
카메라 앱 통해 아바타 생성

삼성넥스트가 국내 유명 블록체인 전문 투자업체인 '해시드' 공동 창업자 박진우 씨가 만든 NFT(대체불가토큰)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했다.

2일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에 따르면 최근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오프(OFF)'가 모집한 350만 달러(약 41억 원) 규모의 시드(seed) 라운드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는 해시드(Hashed)와 컬랩커렌시(Collab+Currency)가주도했으며, 비트크래프트 벤처스(BitKraft Ventures), 코인베이스 벤처스(Coinbase Ventures) 등도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오프는 NFT 아바타를 사용해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MYTY를 출시했다. MYTY 카메라 앱을 사용해 크립토펑크(CryptoPunks) NFT를 아바타로 변환하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크립토펑크는 2017년 라바랩스(Larva Labs)가 NFT 기반으로 만들어낸 사람 및 동물 모양 이미지들이다. 총 1만 개를 만들어서 #0번부터 #9999번까지 번호를 붙였다. 똑같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다

MYTY 카메라를 사용하면 디스코드(Discord), 줌(Zoom) 및 기타 웹캠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NFT 아바타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소유자의 동작과 표정을 모방할 수 있는 아바타로 변환된다.

오프는 슈퍼레어(SuperRare) 아트스트와 협업한 NFT 아바타의 첫 번째 컬렉션인 '고스트 프로젝트(Ghosts Project)'를 작업 중이다. 끄덕임, 손들기, 다양한 감정 표현 등 MYTY 아바타의 전신 추적 기능을 보여준다. 고스트프로젝트는 현재 트위터 및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NFT 아바타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박진우 오프 창업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YTY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갖고, 자신의 새로운 페르소나(부캐릭터)를 만들 것이라는 비전으로 아바타 기반 소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솜씨 뽐내는 '로봇 바리스타' 두산로보틱스가 무인 로봇카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무인 음료제조시스템 전문기업 플레토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무인로봇 카페 시스템인 '모듈러 로봇카페'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론칭하는 모듈러 로봇카페의 본체는 약 3㎡ 크기로 공간 효율성이 높고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 신속한 설치로 인테리어 공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일반 카페보다 초기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절감되며 렌탈 서비스도 가능하다. 사진은 두산로보틱스가 출시한 '모듈러 로봇카페'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 두산

LG에 백기 든 中이통사 "LTE 특허 사용료 내겠다"

中 '위코' 상대 獨소송 취하 합의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

LG전자가 글로벌 이동통신 분야에서 '특허 리더십'을 재입증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휴대폰 업체 위코(Wiko)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Tinno)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된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해 독일 내 판매금지 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usseldorf)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특허 침해 금지뿐 아니라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 표준특허' 3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29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분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Keysight Technologies Inc.)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포스코인터, 美 리비안 전기차 부품 수주

구동축 핵심부품 '아웃풋샤프트'
71억에 9만대 분량 공급 계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신생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과 세 번째로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리비안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테슬라가 세단 등 주로 승용차에 집중하는 데 비해 리비안은 픽업트럭과 SUV를 초기 주력 모델로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하는 제품은 약 9만 대 분량의 명천공업 아웃풋샤프트로 600만 달러(한화 약 71억 원) 규모다. 지난해 8월 리비안에 이래AMS가 제작한 하프샤프트를 최초로 공급한 뒤, 올해 9월 1450억 원의 규모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아웃풋샤프트는 전기차 구동축의 핵심 부품으로 구동모터의 동력을 양쪽 휠에 전달해준다. 제품을 생산한 명천공업은 자동차 변속기 부품과 전기차 감속기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인풋·아웃풋 샤프트, 감속기어, 스피드기어 등이다.

이다솜 기자 citizen@

현대로템, 캐나다 에드먼턴 트램 납품계약

최적화된 실내 레이아웃 호평

현대로템은 2일 캐나다 에드먼턴시 정부와 2188억 원 규모의 트램(노면전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램 차량은 캐나다 에드먼턴 시내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인 밸리 라인 웨스트(Valley Line West)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이 쟁쟁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수주를 따낸 데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주효했다. 차량 실내 레이아웃 최적화를 통해 기준 사양보다 좌석 비율을 더욱 늘려 공간 효율성을 강화했다. 차량 측면에는 별도의 LED 지시등을 적용해 미적 효과 향상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휠체어 접근성이 우수한 출입문 구조를 적용하는 등 승객 편의를 위한 기술도 풍부하게 갖췄다.

곽진산 기자 jinsan@

현대모비스 'e-코너모듈' 서울모빌리티어워드 대상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모빌리티어워드'에서 현대모비스의 'e-코너모듈'이 대상〈사진〉을 받았다.

서울모빌리티어워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박람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다. 모빌리티 부문의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KAIS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대상은 △현대모비스의 'e-코너모듈',

최우수상은 △블루샤크의 고성능 전기 이륜차 'R1 Lite'(친환경 모빌리티 부문) △제엠제코의 'SiC를 이용한 EV용 반도체 패키지'(새로운 모빌리티 부문) △SK텔레콤의 자동차 AI 플랫폼 '누구오토'(스마트 모빌리티 부문) △자동차와사람의 모빌리티 카 케어 서비스 '카앤피플(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자율주행’ 승부 건 한라 HL클레무브 공식 출범

만도서 분사한 MMS와 통합
핵심제품 2025년까지 상용화
북미 등 세계시장 공략도 집중

한라그룹이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한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를 전문적으로 다룰 계열사 ‘HL클레무브’를 공식 출범하고 글로벌 선도사와 경쟁에 나선다.

2일 한라그룹에 따르면 HL클레무브는 만도에서 분사한 MMS(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와 통합돼 출범했다. 앞서 만도는 지난 9월 1일 자로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MMS를 설립했다. HL클레무브는 한라그룹의 머리글자인 ‘HL’과 ‘Clever’, ‘Move’의 합성어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제적인 시도와 결과를 통해 고객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사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라그룹의 자율주행 역량을 결집한 HL클레무브는 첨단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라이다, 4D 이미징 레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실내 승객 감지 센서 등 완전자율주행에 핵심적인 제품을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미 HL클레무브는 2000건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2000만 건 이상의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HL클레무브는 자율주행 인지, 판단 기술과 만도의 섀시제어기술을 융합해 완전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전기차 선도사,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쌓아온 양산 경험, 통합 시스템 솔루션 설계 기술 등은 HL클레무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사업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HL클레무브가 지향하는 전기차 플랫폼 기반 완전자율주행 솔루션 ‘모델KM’은 국내 완성차 기업은 물론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모빌리티 설계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HL클레무브는 북미와 중국 등 세계 시장 공략에도 집중한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북미 고객을 위해 고성능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안하고, 현지 생산도 추진한다. 북미 현지생산 거점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중국 시장에서는 만도의 첨단 전자제어 섀시제품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HL클레무브는 내년 중국 쑤저우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00명 이상의 현지 연구·개발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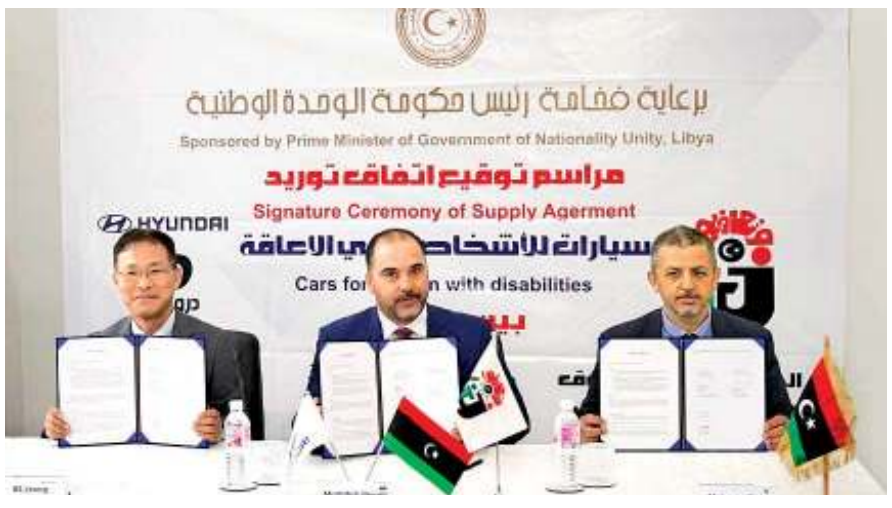
자율주행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인도 시장에서는 뱅갈로 소재 자율주행 전장 통합연구소 연구인력을 보강해 현지 맞춤형 ‘레벨2+’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자동차 회사에 적용해 시장을 선점할 예정이다.

HL클레무브는 첨단 기술 고도화와 세계 시장 공략을 바탕으로 올해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거둘 전망이다. 이어 2026년에는 연 매출 2조4000억 원을, 2030년까지는 4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난해 71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15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L클레무브 초대 대표이사(CEO)로는 윤팔주〈사진〉 사장이 임명됐다. 윤 사장은 국내 최초로 차량용 레이다를 비롯한 주요 ADAS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윤 사장은 만도 중앙연구소 전장제품 설계팀장, 시스템 연구소장, 글로벌 ADAS BU(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자율주행기술 전문가로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차가 리비아 사회복지부 산하 기관과 장애인용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맨 왼쪽은 정방선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장.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車, 리비아에 장애인용 차량 2300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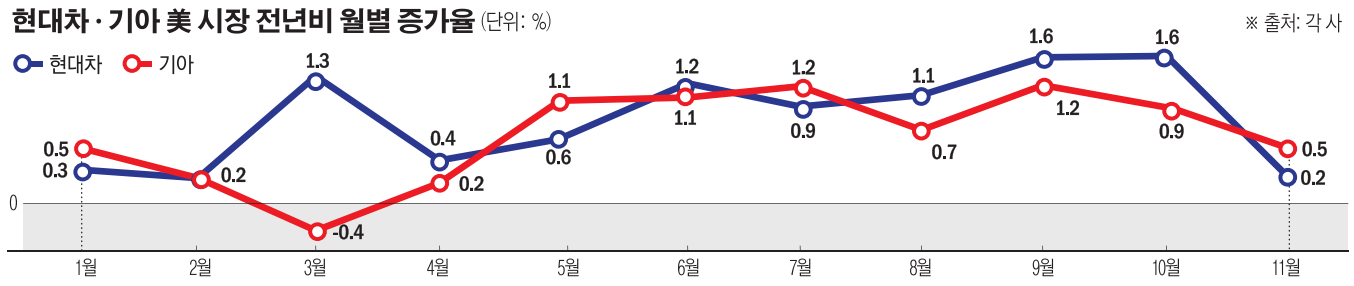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가 리비아 사회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연대기금펀드 투자청과 장애인용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투싼 800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700대 △크레타 800대 등 총 2300대를 리비아 내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공급한다.

사회연대기금펀드 투자청은 리비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금 관리기관이다. 내전 피해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차량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해준다.

장애인용으로 공급되는 차량에는 손으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핸드 컨트롤러, 한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할 수 있는 △운전대 선회장치 등이 부착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코로나19 환자의 긴급 호송을 위해 구급차 2대를 리비아 정부에 기증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美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로 끌어올린 현대차·기아

현대차, 10개월 만에 1.1%↑
기아도 3월 이후 지속 성장세

미국 자동차 시장이 판매 위축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현지 판매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신차 효과를 앞세운 기아는 11월 누적판매만으로 미국 진출 이후 연간 최다판매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2일 현대차와 기아 북미법인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합산 11월 판매는 9만4665대로 지난해 11월보다 9.0% 감소했다.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전체 업계 평균 하락 폭(-24%)을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일본 토요타는 지난달 판매가 전년 대비 25.4% 감소했고, 혼다와 스바루 역시 각각 17.1%와 34.5% 판매가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현지 점유율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비단 11월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미국 시장점유율과 지난해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성장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1월 점유율 4.2%로 출발한 현대차는 10월 점유율이 5.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 한 번도 점유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기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월 점유율(-0.4%)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뿐, 올해 꾸준히 점유율 성장세를 기록했다.

결국, 11월 누적기준 현대차의 올해 평균 점유율은 5.3%, 기아는 4.7%로 나타났다. 덕분에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11월 누적판매가 65만2910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53만2341대)보다 무려 23% 성장했다.

당장 올해 11월 누적판매 기록만 가지고도 1994년 세피아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27년 만에 기록한 연간 최대 판매치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올해 판매 실적을 강하게 마감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빅블러'로 볼륨 키우는 음원서비스

플로는 '이프랜드'와 메타버스 부문에서 협업한다(위), 멜론은 투썸플레이스와 케이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각 사

플로, 와인과 즐기는 음악 선곡
멜론,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할인
NHN벅스는 신규 콘텐츠 투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이종 산업과 손잡고 사업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기업과 협업해 만든 브랜디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찾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나섰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속속 이종 산업과 협업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식음료 업계와 손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는 이날 '함께하면 더 즐거울 와인 홈파티 BGM', '고된 하루의 마지막은 달달한 와인 어때?' 등 와인과 함께 즐기기 좋은 브랜디드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와 협업해 내놓은 결과물로, 이마트24 매장에 진열된 와인에 달린 QR코드를 스캔하면 플로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Melon)도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윈터 미라클' 이벤트를 진행한다.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은 선착순 50만 명에 한해 투썸플레이스 홀케이크 4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멜론과 투썸플레이스는 크리스마스 특집 플레이리스트도 공개한다. 캐롤부터 파티 음악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실생활 속에서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브랜디드 플레이리스트 등으로 콘텐츠 범주도 더욱 다양하게 만들겠단 의도다. 김수정 플로 마케팅 유닛(Unit)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플로에서 취향 중심의 음악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브랜드 파트너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오디오 콘텐츠부터 뉴미디어·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까지 경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NHN벅스는 지난달 29일 자사주 100만 주를 처분해 확보한 116억3800만 원을 신규 콘텐츠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콘텐츠는 음원부터 뉴미디어, 공연, 오디오뿐만 아니라 드라마, VOD 등 영상까지 영역을 넓혔다.

NHN벅스 관계자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치열하게 변화 중인 음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며 음원 서비스를 넘어 전방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플로는 한 발 나아가 메타버스 생태계 진출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플로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는 SK텔레콤 '이프랜드(ifland)'와 손잡고 오디오 기반 크리에이터의 메타버스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오디오 크리에이터가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장르, 취향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다원 기자 leedw@

"청년 도전·성장 뒷받침" 과기부, 인턴십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발표
창작자, 선배와 창업 멘토링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연연·스타트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청년 지원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계부처는합동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총 15차례에 걸쳐 119명의 청년과 토론해 이번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디지털'을 비전으로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자는 목표다.

지원정책은 3대 전략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3대 전략은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더 큰 성장 무대 제공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등이다. 수요자별 지원방안으로는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시기인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자·기획자·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 다양한 직종 선배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취업·창업 멘토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디지털 의제 논의 등 글로벌 청년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한다.

디지털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출연연·스타트업 인턴십 3000명과 글로벌 인턴십·교육 280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청년 인턴 채용 시 기업에 기술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디지털 비전공자를 위해선 디지털 배움터 내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청년 활동가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온라인 홍보와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솔루션 도입과 실증을 지원한다. TV홈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 경감, 라이브커머스 입점도 지원한다.

또 1인 미디어·메타버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 중인 가운데 청년 창작자를 위한 제작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현지화 재제작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촉진하고 국내 앱 마켓 기업과 연계해 K-콘텐츠 글로벌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심해 지속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관계부처와 협업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과제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윤석열 "규제개혁 통해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스포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대선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창업가들을 존중하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며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이를 위해 △민간보다 뒤처지는 정부·제도 경쟁력 제고 △혁신역량 뒷받침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과감한 규제혁신 △자유로운 노동규범·튼튼한 사회 안전망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T 인재양성의 필요성,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규제 샌드박스의 유연한 제도 도입 등 업계의 공통적인 요청사항과 기대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코스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혁신을 주문한 코스포는 윤석열 후보에겐 혁신보단 민첩한 정부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며 "사회가 변화하고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스타트업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도전과 혁신,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리니지W' 국가 대항전 타고 흥행가도

MMORPG 장르 재미 극대화
AI 번역 통해 언어장벽 해소

엔씨소프트 신작 '리니지W'가 서비스를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4일 한국과 대만, 일본, 동남아, 중동 등 12개국에 동시 출시한 리니지W는 MMORPG 장르의 재미를 극대화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W는 글로벌 사전예약 1300만을 돌파하고 사전 다운로드는 8개국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며 시작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출시 이후에는 16시간 만에 앱스토어 매출 1위, 이틀 만인 6일에는 구글플레이 매출 1위에 올랐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월드 증설은 리니지W의 인기를 증명한다. 리니지W는 출시 당일 9개 월드, 108개 서버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몰리며 꾸준히 월드를 증설해 현재 총 14개 월드, 168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3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리니지W의 경우 기존 게임들과 달리 동시 접속자 등 주요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이용자 수나 해외 이용자 비중 또한 역대 엔씨 게임 중 최고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자들이 꼽는 리니지W만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원빌드'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리니지W에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서버에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언어의 장벽은 'AI 번역'을 통해 해결했다. 클라우드 망을 세계 여러 거점에 구축해 네트워크 지연 현상도 최소화했다.

실제로 리니지W의 전쟁 양상은 국가 대항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성전 등 전투 콘텐츠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서버에선 보스 레이드를 두고 나라별로 치열한 전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엔씨소프트는 위클리 뉴스를 통해 각 서버의 전쟁 구도를 중계하는 등 이전의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국가 대항전의 재미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의 볼륨이 커질수록 많은 이용자가 함께하는 MMORPG의 재미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권역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는 리니지W는 내년 북미, 유럽, 남미 등 2권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게임 퍼블리싱 나선 SKT '앤빌' 출시

콘솔·PC·클라우드서 이용

SK텔레콤(SKT)이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로 나섰다. SKT는 슈팅 액션 게임 '앤빌(ANVIL)'을 글로벌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앤빌은 액션 게임 전문제작사 액션스퀘어가 개발하고 SKT가 투자와 퍼블리싱을 담당한 게임이다. 국내와 세계 무대에 'XBOX 프리뷰'와 '스팀 얼리 억세스(Early Access)' 방식으로 출시된다. 또한, SKT의 5GX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패스 얼티밋'을 통해 앤빌을 이용할 경우 클라우드, 콘솔, 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전진수 SKT 메타버스 CO장은 "액션스퀘어와 XBOX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함께 진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앤빌'의 글로벌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게임패스 얼티밋'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콘솔, PC 뿐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등으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집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위해
집요하게 뭉쳤다!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부동산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시세정보
실거래가, KB시세, 공시가,
AI예측시세까지 입체 분석

매물정보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찾기

입지정보
역세권, 학세권, 스세권,
의세권 등 다양한 입지 분석

내집내집
실거래 알림, 매물 알림,
예산정보 등 부동산 자산관리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홈페이지(http://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158호(2021.11.23) 광고물 유효기한 2022.6.30 까지

KB 국민은행

〈매장 수 기준〉

'골목' 서 몸집 불린 메가커피, 프랜차이즈 2위로

1595호점 오픈… 투썸 제쳐
'메가 사이즈'로 MZ세대 공략
'슬세권' 중심 올해 800곳 열어
1위는 3000호점 연 이디야커피

커피 프랜차이즈 2위가 바뀌었다. 이디야커피가 3000호점을 오픈하며 매장 수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1위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는 2위권 치열한 2위 경쟁 끝에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 새롭게 2위로 올라선 브랜드는 메가엠지씨커피(이하 메가커피)다.

2일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와 각 사의 매장수 변동을 분석한 결과 메가커피는 1595호점을 오픈해 투썸플레이스를 200개 가까운 차이로 제치며 2위에 올라섰다. 수년간 이디야에 이어 매장수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투썸플레이스는 올 들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300여개의 점포를 새로 열며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나 메가커피의 매장 개설 속도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만 해도 양사의 매장수 격차는 300여개로 투썸플레이스가 앞서는 양상이었으나 메가커피는 올해만 800개 가까이 매장 문을 새로 열면서 2인자 자리를 꿰찼다.

메가커피가 가맹사업을 전개한 것은 2015년 12월 이미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과포화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던 시기로, 업계의 예상과 달리 가맹사업 5년 11개월만에 매장수 2위로 올라섰다.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10년 전 1위였던 카페베네는 10위권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10년 만에 투썸플레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브랜드가 교체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0년 7000억 원 규모였던 커피전문점 시장은 2019년 기준 5조4000억 원 규모로 10년만에 시장 규모가 8배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커피 브랜드는 387개, 총 매장수는 1만 5895개에 달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빅3 매장 수 현황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및 각 사

브랜드명	이디야커피	메가엠지씨커피	투썸플레이스
기업명	(주)이디야	(주)앤하우스	투썸플레이스(주)
2020년	2651개	798개	1097개
2021년	3000여 개	1595개	1400여 개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커피전문점 업계에서, 더욱이 코로나19로 집객 서비스 업종이 고전하는 시기에 후발 브랜드인 메가커피가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메가커피는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에 주목한 전략이 주효했다. 가성비, 가심비, 가용비를 중시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이즈부터 메가 사이즈를 내세웠다. 1500원에 메가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는 콘셉트에 MZ세대가 선호하는 흑당, 그린티, 딸기쿠키, 민트초코 등을 적용한 메뉴를 확대했다.

출점 전략도 눈에 띈다. 오피스 상권이나 랜드마크 대신 철저하게 동네 상권을 공략했다.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개설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출점이 가능했다. 매장 밖에서도 주문이 가능한 오픈형 창과 외부 키오스크 설치로 테이크아웃족과 내점 고객을 동시에 응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성공 요인이다. 메가커피는 출점과 함께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는 지표인 폐점률 역시 0.7%로 업계 최저수준이지만 3.3㎡당 매출은 2000만원대로 이디야보다 2.5배, 투썸 대비 40% 가량 높은 수준이다.

투썸플레이스와 메가커피의 2위 경쟁으로 올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은 1강 2중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매장수 1000개 이상 브랜드도 3개로 늘어났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를 포함하면 1000개 이상 매장을 확보한 커피전문점은 4개로 늘어난다. 스타벅스의 매장수는 1619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중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약진을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매장수만으로는 올해 메가커피의 2위 도약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며 "600~700개 매장을 확보한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코로나 시대 '슬세권'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커피에 반하다', '요거프레소' 등이 추가로 1000개 점포 시대를 열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아침에 딴 귤 다음날 먹는다… 유통가 '산지직송' 강화

롯데百 강남점 청과 바이어 영입
티몬 '티프레시' 제주 농가 계약
빠른배송은 기본, 신선함 더해

유통업계가 신선식품으로 차별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빠른배송을 넘어 유통 단계를 줄인 산지직배송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이달부터 청과 전문 바이어(상품기획자)가 직접 고른 최상급 과일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을 오픈하고 일부 상품의 산지직송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경험이 풍부한 청과 전문 바이어를 새로 영입하고, 농가 선정부터 매장의 진열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문화 했다. 청과 상품 특성 상 최고 품질의 상품은 수확시기에 유명 산지의 공판장에 저장되거나 산지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이런 과일들을 공급하기 위한 산지 농가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청과 전문 바이어를 선발해 소싱을 다양화하고, 지역의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우수 농가를 선정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롯데쇼핑 온라인 통합몰 롯데온도 얌테이블·은하수산 등 산지 수산물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과 손잡고 산지 수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티몬은 지난 달 생산자 직접 배송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티프레시'를 출범했다. 제주도 감귤 농가와 전용농장 계약을 맺고, 아침에 수확한 감귤을 다음날 집 앞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티몬은 산지 직송의 장점인 경쟁력도 높이고,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무료로 반품할 수 있는 무료 반품 정책도 도입했다.

쿠팡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지난 6월부터 전복, 오징어, 새우 등 수산물을 산지에서 바로보내는 직송 서비스를 더했다. 위메프도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바로 보내는 '맛신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위메프 식품 상품기획자(MD)가 전국을 돌며 맺은 계약을 토대로 전날 주문한 농수산물을 다음날 새벽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GS수퍼마켓)도 지난 달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밀양 농산물 산지 직송전'을 진행한 바 있다.

유통업체들이 산지 직송을 늘리는 것은 최근 빠른 배송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다. 여기에 산지 직송은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단계가 줄면서 같은 상품을 팔아도 마진율이 올라간다. 또한 한번 품질이 확보되면 고객들을 붙잡아 두기에도 좋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2조10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패션·생활 등 공산품 거래액은 10% 대 증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신장률이 두드러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은 물동량의 상당수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재배송되는 패턴인데 산지 직송의 경우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나 업체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면서 "품질만 유지할 수 있다면 산지직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마트, 식물성 대체육 판매 이마트는 2일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 매장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구인컴퍼니'의 대체육 판매에 나섰다. 판매 상품은 순수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언리미트' 4종이다. 언리미티 상품은 100%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및 트랜스지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GS25 "모든 매장에 상생자금… 내년 1800억 지원"

'2022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
일상회복 지원금 20만원 지급

GS25는 2022년 비전공유회 자리에서 '2022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맹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 및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1일 '2022년 GS25 비전 공유회'에서 오진석(왼쪽 네 번째) GS리테일 부사장, 박윤정(다섯 번째) GS25 경영주협의회장이 임직원, GS25 경영주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GS25

상생 지원 금액은 올해 GS25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원한 1500억 원보다 300억 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2년 추가 신설된 상생 지원 내용은 △일상 회복 상생 지원금 일괄 지급 △사기 보상 피해 보험 본부 지원 △10년 차 장기 운영 지원 혜택 △재계약 지원금 인상 △프레시푸드 활성화 판촉 지원 확대 △뉴콘셉트 점포 투자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일상 회복 상생 지원금은 재난 지원금의 성격으로 전국 모든 GS25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8일에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사기 보상 피해 보험 본부 지원 제도는 GS25에서 판매하는 구글 기프트 카드 등 유가증권 상품의 가맹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도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본부가 부담한다.

GS25는 10년 차 장기 운영 경영주들을 위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부 임차 점포의 가맹 재계약 시 지원금 확대와 프레시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비 지원도 늘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오뚜기=노랑' '포카리=파랑' 식품기업 색다른 컬러 마케팅

상징색 활용 구매욕 자극

식품업계가 브랜드의 상징색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른바 '컬러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시각적 요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색상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상품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뚜기는 밝고 따뜻한 '노랑'과 강렬한 '빨강'의 조화를 꾀한다. 밝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황색(노란색)'과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금적색(빨간색)'을 주색과 보조색으로 택하고, 기업 로고(CI)에 적용했다.

오뚜기는 소비자 구매 행동에 제품 패키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 대표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에 상징색을 입혔다. 노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오뚜기의 컬러 마케팅 전략이 가장 잘 통한 제품은 '카레'다.

'오뚜기 카레'는 오뚜기가 회사 설립과 함께 생산한 최초의 품목으로, 1969년 '오뚜기 분말 즉석카레'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매운맛을 즐기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1981년 출시돼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포문을 연 '오뚜기 3분 카레'는 포장 디자인에 상징색을 적절하게 활용, 카레의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오뚜기는 3분 요리류와 라면류, 즉석밥, 컵밥 등 다양한 제품군에 상징색을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포카리스웨트는 시원하고 청량한 '파란색'을 내세운다. 파란색 계통의 색상은 식욕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식품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시원한 청량감을 강조하는 포카리스웨트의 '블루 마케팅'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김혜지 기자 heyji@

알짜 단지 '신고가 행진' 속 서울 집값 주춤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폭 둔화
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 등 영향
강남·용산·노원 신고가 잇따라
매매 아파트 2채 중 1채 신고가
일부 지역선 저가 급매물 속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쪼그라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1월 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1%)보다 0.01%p 줄어 6주 연속(0.16→0.15→0.14→0.13→0.11→0.10) 상승 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한 것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 활동 위축세가 지속했고, 그간 매물 부족 현상을 겪었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해 6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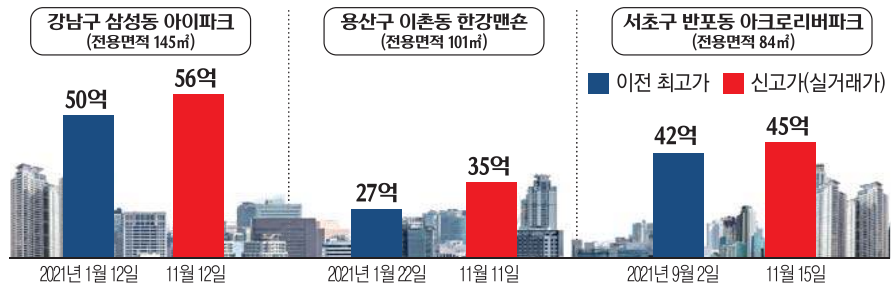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값이 당장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가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4일 10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가 8월 거래된 1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석 달 새 5000만 원 하락한 것이다.

강북구 A공인 관계자는 "사정이 급한 집주인은 가격을 1000만~2000만 원 이상 낮춰 급매물로 내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장에 대출이 막히다보니 답답해한다. 당분간 서울 집값 상승 추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서울 알짜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율은 52.8%로, 9월 71%와 비교해선 줄었지만, 여전히 매매된 아파트 2곳 중 1곳 이상은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서울지역 주요 단지 신고가 사례 (단위: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신고가 행진은 단연 눈에 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45㎡형은 매매가가 올해 1월 50억 원에서 지난달 12일 56억 원으로 손바뀜했다. 10개월 새 6억 원 상승한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은 9월 42억 원에 매매되면서 처음으로 매매가 40억을 넘겼다. 이후 지난달 15일 해당 면적이 45억 원에 거래되면서 두 달 새 3억 원이 뛰었다. 이 아파트가 기록한 신고가 45억 원은 전국 국민평형(전용 84㎡형) 역대 최고가다.

강북권 아파트도 신고가 기록이 연이어 터졌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전용 101㎡형은 지난달 11일 35억 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27억 원·1월)를 경신했다. 10개월 새 8억 원이 오른 셈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금호타운 전용 84㎡형은 지난달 9일 9억8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신고가는 8월 매매된 9억4700만 원이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들의 평균 매매가 상승도 단연 눈에 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마포구와 광진구의 3.3㎡당 아파트값이 각각 5032만 원, 5011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5000만 원을 넘는 곳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3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용산·성동·마포·광진구까지 더해 3.3㎡당 5000만 원을 넘는 자치구가 7곳으로 늘었다.

이처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여전히 신고가 릴레이가 나타나는 것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제된 형태로 눌려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폭발할 수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다세대 주택 거래량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런 것만 봐도 집에 대한 수요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거래한파 비웃듯… 식지않는 부산 청약열기

남구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227.3대 1 경쟁률… 부산 최고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13.16%

부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활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올해 부산 청약시장 최고 평균 경쟁률이 갱신되기도 했다. 집값 고점 인식 확산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이어 최근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갈 길을 잃은 매매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모양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 남구 대연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총 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749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27.3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부산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이다. 직전 부산 최고 평균 경쟁률은 207.35대 1로, 7월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에 공급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 2차'에서 나왔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2가구 모집에 3391건이 몰리면서 1695.5대 1에 달했다.

부산 주요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

단지명(위치)	평균 경쟁률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남구 대연동)	227.3대 1
부산에코델타 7BL 호반써밋 (강서구 강동동)	56.56대 1
한화포레나 부산덕천 2차 (북구 덕천동)	207.35대 1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 7BL 호반써밋'도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전체 225가구 모집에 1만2728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평균 경쟁률 56.56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C형에서 34가구 모집에 2235명이 몰리며 65.74대 1에 달했다.

부산의 이러한 청약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의 원인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계속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위축된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16%로,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경우 전용 59㎡ 기준 분양가격은 4억3810만~5억28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레전드' 아파트 전용 59㎡가 지난 8월 6억5000만 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해보면 1억4713만~2억1190만 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들이기보다는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대연동 L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대출 규제나 세금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그래서 수요자들이 더 청약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건설업계 "동절기 한파대책 이상무"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자체검사 등 만반의 준비

한파 특보가 발효될 만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건설현장이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 겨울철은 폭설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난방 기구 사용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 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용접구간, 가설 사무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GS건설은 기상청 경보 수준별 안전작업 기준을 수립해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파주의보 및 특보 발령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양생 시 방열기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영그룹 현장 근로자들이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영그룹

대우건설은 전 현장에 안전보건공단서 배포하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각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보양 방법이나 용접작업 제거 등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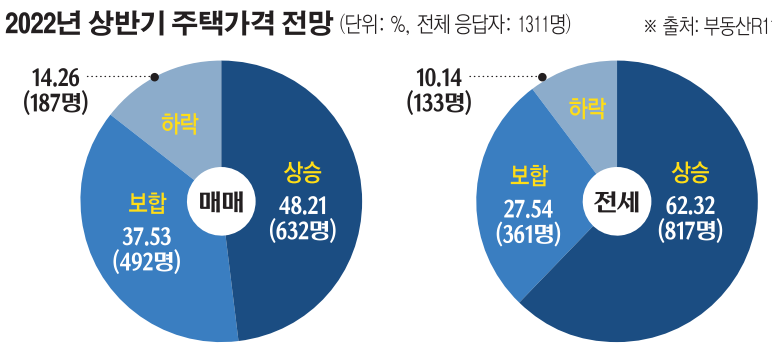
부영그룹은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매뉴얼 숙지와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을 마련했다. 안전관리자는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현장마다 기온에 맞는 상황별 지침을 숙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대형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대형 공사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배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중단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2022년 상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체 응답자: 1311명)

※ 출처: 부동산R114



국민 절반 "내년 집값 오른다"

부동산R114 설문조사
응답자 48%가 "상승" 점쳐
62%는 "전셋값도 오를 것"
시장 변수, 정부 규제·대선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자 일반인들의 내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한풀 꺾였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일반인은 전체의 48.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약 62%가 올해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고 답한 것보다 14%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매매가격 하락 응답은 더 늘어난 14.3%로 조사됐다. 보합이라고 답한 비율은 37.5%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상승 응답 비율과 비교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답한 비중이 줄었지만, 과거(2008년 이후) 조사에서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택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 전망 조사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소비자 응답 편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10명 중 6명(62%)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72%)보다 10%P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전셋값이 비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10% 수준에 그쳤다.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가 1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2.6%) △선거 앞두고 정책 기대 강화(7.6%)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7.6%)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6.7%)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집값 하락 전망 응답자는 절반 이상(50.2%)이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세 약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첫 번째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이어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4.4%) △경기 침체 가능성(12.3%)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1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가 1순위로 선택됐다. 전셋값이 오른다고 답한 817명 중 30.6%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21.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9.8%) △임대차3법 시행 영향(16.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정부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와 대통령 선거가 언급됐다.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는 20.3%, 대선은 17.2%가 각각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2.71%P에 신뢰수준은 95%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곽상도 신병 확보 실패한 檢… '로비 의혹' 규명 급제동

'대장동 개발 의혹' 연이은 헛발질
청탁대상 지목 김정태 조사 안해
'50억 클럽' 수사 향방도 불투명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수모를 또다시 겪었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은 다시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마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만났다는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국정감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로 이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한 역할 등은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 직후 "심문 과정에서 (제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김만배 씨가 과거 남욱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의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곽 의원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은 명확한데, 알선수재의 경우 곽 전 의원이 권한 있는 사람을 실제 만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두 사람(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이 만났다는 자료 정도는 확보해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없어서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했다는 우려도 있다. 기소를 앞두고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영장을 쳐보는 식으로 검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경위 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딸과 인척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 수사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급식 노동환경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청에서 파견된 어르신들로부터 복도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고 있다. 연합뉴스·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강 씨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후 결정을 철회해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후 피고인이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공판과 다른 특수한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희망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하는 점, 국민참여의사 재판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엔 일반 재판으로 전환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강 씨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중한 만큼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징역 5년 추가

횡령 혐의… "주주피해 등 고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 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요소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5000만 원을 건네고, 대한시스템즈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2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같은 해 5월경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79곳 檢 고발

서울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을 실시해 7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79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도 완료되는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곳이다.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또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곳, 대형건설현장 19곳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사제 전투화' 중고판매 기소유예 취소하라"

'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사제 전투화는 제작사 등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상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투화의 경우에는 도형, 모양, 색상, 재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와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초구, 대장동 수사팀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초구는 1일 회식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별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 통지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고 서초구는 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초구는 현장 조사를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방역수칙을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명품' 보다는 수식어 없는 배우로 살아가고파"

39년차 배우 이한위

배우 이한위(61)와의 인터뷰는 '우문현답'의 연속이었다. 그는 답이 정해져 있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날카롭게 알아봤다. 특히 이한위가 지양한 것은 어떠한 단어 혹은 수식어에 갇히고 규정되는 것이었다. 가령 예를 들면 '명품 조연', '잉꼬 부부' 같은. 그는 꾸며지고 포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한위의 인생 자체가 그랬다. 1983년 KBS 공채 탤런트 10기로 데뷔, 연기자로 산 지 약 40년. 그의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성격 개조하다, 어느새 배우

이한위의 학창 시절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중학생 때까지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4남 4녀 중 일곱째인 이한위. 그의 어머니조차 "가장 통제가 쉬웠던 자식"이라고 표현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속 썩이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두근두근거렸죠. 크면서 이런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살아가기 어렵겠다고 스스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점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용기 내는 일을 많이 했고, 고등학생 때는 전혀 성격에 맞지 않는 반장까지 해봤어요. 응원 같은 것도 하고, 노래도 부를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젊은 시절 내성적 성격 고치기 위해 연극반 들어가 사람 앞 서는 연습도 1985년 '별을 쫓는 야생마'로 데뷔 깡패부터 시장까지 다양한 역할 맡아

그렇게 성격을 개조해나간 이한위는 조선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 당시 인기였던 대학가요제에 나가고 싶었으나 쉽지 않은 현실을 깨달았고, 때마침 기적적으로 연극반 공고를 보게 됐다.

"연극을 하면 성격이 많이 고쳐지겠구나 싶어서 연극반에 들어가서 매달리다시피 한 거죠. 절대 잘할 수 없었고 잘하지 못했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주연의 기회도 찾아오고, 연출도 하고, 선배들이 만장일치로 회장도 시켜주셨죠."

그러느라 공부는 등한시했다는 이한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되어서는 때마침 KBS 공채 탤런트 공고를 보게 됐다. '저게 나한테 취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한위는 시험에 응시했고, 단번에 1983년 KBS 10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했다. 그렇게 연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우연이 이어지면서 필연이 됐다.

"그때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제 평생 배우로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KBS가 공인한, KBS에 의해 발탁된, 직업이 배우구나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않은 철부지 생각이죠. 배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배우를 지속할 수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았던 때죠."

39년 차 배우로 사는 법

이한위는 1985년 방영된 KBS 드라마 '별을 쫓는 야생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첫 영화는 1998년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다. 이후 그는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학교' 시리즈, '태조 왕건', '왕꽃선녀님', '불멸의 이순신', '쾌걸춘향', '베토벤 바이러스', '추노', '제빵왕 김탁구' 등과 영화 '미녀는 괴로워', '울학교 이티', '국가대표'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캐릭터도 다양했다. 깡패, 사채업자 같은 특색 있는 캐릭터를 맡을 때도 있고, 직업이 의사, 교사, 시장이어도 어딘가 허술한 경우가 많았다. 나이 들면서는 점점 누군가의 아빠가 됐고, 서민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악역을 해도 사람들이 웃는다.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이한위는 오랜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성실함'을 꼽는다. KBS 공채 탤런트가 된 후 그는 매일 KBS로 출근하면서 감독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한위는 "배우는 운이 좋아야 한다"면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감독들이 저를 써줬고, 꾸준히 기용해 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우리 때는 오디션을 본 것이 아니라 공채 탤런트가 되면 기용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에 배우가 됐다면, 4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오디션 제도가 있었다면 배우 생활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적응이 된 거지, 내성적이에요. 근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았죠."

이한위는 사실 무명 시절이 길었다.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작품은 2006년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다. 엽기 성형외과 의사 역을 맛깔나게 소화해내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무명 시절은 누구나 다 힘들다"면서 덤덤하게 말했다.

"저는 무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로 생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계에 적응하는 맷집이 길러졌다고 생각해요. 맷집과 실력이 없으면 스스로 안심이 안 되고, 시켜주는 사람도 불안하죠. 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비극 중에 소년출세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명 기간이 길어서 합리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계를 잘 밟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이한위는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 인생작을 뽑지 못한다고 했다. 그저 열심히 연기를 해왔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답.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스페셜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을 통해 첫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그 작품이 그의 인생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주인공을 해야 인생작인가? 스코어가 좋다고 인생작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혼, 그리고 끝까지 배우

이한위는 배우로서 연기 말고도 화제가 된 부분이 있다. 바로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다. 그는 2008년 49세의 나이에 19세 연하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불멸의 이순신'에서 배우와 스타일리스트로 만났다. 당시에는 우려의 반응도 많았지만, 현재 부부는 누구보다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이한위는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내는 저를 따진다든지, 뒤진다든지, 캐묻는다든지 그런 것 없이 순종적이에요. 아내는 저를 이해하는 편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면 참 좋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없고 갈등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것이 루틴이잖아요. 제 연기 생활 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규칙적으로 불규칙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생활을 이해할 필요 없이 잘 받아준다는 거죠. 제 아내는 방송인의 아내로 베스트예요. 항상 고맙죠."

올해는 배우 생활을 한 이후 가장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한위.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다.

연기 삶 39년, 무명 생활 큰 지분 차지 항상 뒷받침해주는 아내 있어 이겨내 배우는 루틴 없어 내년조차 예측불가 끝까지 소용되는 배우로 생 마감이 꿈

슬하에 열네 살 딸, 열두 살 딸, 열 살 아들이 있다. 한 방송에서 이한위는 2년마다 애를 낳았다면서 '비엔날레 스타일'이라고 농을 쳤다.

"제게 두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애가 서른 살이 넘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늙은 아버지에 속하죠. 아이들하고 잘 살려면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 애들은, 특히 열 살짜리 막내는 지나치게 건강해서 가끔 등산을 같이 가죠. 제가 부암동 쪽에 사니까 가까이 북한산도 있고, 인왕산도 있으니까 능력껏, 형편껏 가죠."

'배우는 루틴이 없다'는 어록을 남긴 이한위. 그래서 그는 당장 2022년 자신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이달부터 KBS광주에서 기획한 라디오 '이한위의 그리운가요'의 DJ를 맡게 됐다는 점이다. 이한위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온 것처럼 뭔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한위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한다. 배우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였다.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이한위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삼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저는 그냥 수식어가 없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수식어를 굳이 단다고 하면, '재밌는 배우', '신뢰받는 배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명품 조연 배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명품한테 실례되는 말이에요. 명품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 저를 그렇게 봐주신다면 감사하죠. 저는 단지 배우로서 끝까지 소용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이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정할 수 없지만, 배우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순재 선생님이 '무대 위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하신 것처럼요." 글/ 손효정 기자 shjlif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성제약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앤겔

손목·팔꿈치·어깨·허리 근육통, 타박상에도!

국내최초! 록소프로펜 겔

록소앤겔은 국내최초 록소프로펜 겔 타입 진통소염제로
골프, 테니스 엘보우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작용하여
빠르게 통증을 풀어줍니다.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인 팔꿈치 통증은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하며,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습니다.

효능·효과
건초염(손·손목 통증), 팔꿈치 통증(테니스 엘보우 등), 관절통,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에 따른 어깨 통증, 타박상, 염좌(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1-1603-005900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수입산 대체할 우리밀, 국내 첫 유색밀 '아리흑'이죠"

김경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

10년 동안 우리밀 연구, 아리진흑·아리흑찰 포함 3종 개발
식물특허 등록 14개 기업 기술이전, 재배면적 50ha로 늘어

"국내 최초 유색 밀인 아리흑은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밀 대표주자이다. 우리 밀 전국 빵집 지도를 만드는 게 꿈이다."

김경훈〈사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10년 동안 우리 밀을 연구했다. 10여 년 전 우리 밀 연구의 시작은 색이 검은 흑밀부터였다.

김 연구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재래종을 비롯해 중국산 흑밀도 있었고, 농민들이 신기해서 심어는 봤지만 사용하는 곳은 없었다"며 "이때부터 색깔에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0년 동안 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색 밀은 3가지에 이른다. 국내 최초 유색 밀인 '아리흑'을 비롯해 더 기능성을 강화한 '아리진흑', 통밀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찰기가 들어간 '아리흑찰'이 있다.

10년간 진행된 유색 밀 연구 개발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이모작 상황에 맞게 품종을 만드는 것. 김 연구사는 "기존 재래종과 흑밀은 키가 커서 잘 쓰러졌고, 익어가는 속도도 느려 벼를 심고 난 뒤 다음 해 벼 심기 전까지 열매가 다 자라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통연구에 많게는 1만 개의 교배종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3가지 유색 밀은 모두 항산화 기능,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은 물론 키를 낮춰 쓰러지는 현상을 줄였고, 열매가 맺히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형질을 고정시켰다.

특히 유색 밀 아리흑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의견이 반영돼 더욱 의미가 크다. 업계와 학계, 주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은 2017년부터 2년간 유색 밀 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김 연구사는 "국민디자인단과의 논의에서 '우리 밀은 몸에 좋지만 어떻게 좋은지', '블랙푸드가 유행하는데 유색 밀도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반영됐다"며 "실제로 건강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항산화 작용과 체중 감소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품질 분석, 가공 연구를 통해 기업들의 산업화와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화를 위해 국내 최초 유색 밀인 아리흑은 식물특허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특허를 가진 기업의 계약재배만 가능하다. 14개 산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 2017년 1.6ha(헥타르)에 불과했던 아리흑의 재배면적은 현재 50ha까지 늘어났다.

아직 대기업의 참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사는 "대기업은 원료곡 사용량이 많아 아직은 단가가 높은 아리흑을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이른바 동네빵집, 소상공인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며 "점차 흑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대형 업체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사는 "우리 밀에 대한 보조금과 정부 수매 등이 지난해 제정된 밀산업육성법에 반영돼 있다"며 "우리 밀을 비축하고 이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국산 밀과 달리 아직은 품질이 고르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연구사는 "밀의 품질이 고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밀 품질 분석기를 개발했고, 밀 품질 등급제도도 운영하려고 한다"며 "기능성 식재료의 특성을 활용해 관련 업계와 협업하면 앞으로 수입 대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디즈니 왕국' 떠나는 아이거 후임은 첫 여성 의장 아널드

10여 년간 월트디즈니를 이끌어왔던 밥 아이거(70·**왼쪽 사진**)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도 내려오면서 올해 말 디즈니 왕국을 완전히 떠난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아이거 의장이 31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후임은 사외이사였던 수전 아널드(67·**오른쪽**)가 임명됐다. 디즈니가 여성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98년 회사 역사상 처음이다.

아이거 의장은 지난해 2005년부터 지켜온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밥 차페크에게 물려주고 이사회 의장에 오르는 대신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다.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거는 지방 방송국의 기상예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ABC에 합류해 최고위직까지 올랐다. 아이거는 ABC가 1996년 디즈니에 인수된 뒤에도 실력을 인정받아 2005년에 CEO에 취임했으며 2012년에는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했다.

아이거는 여러 인수·합병(M&A)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디즈니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이거는 재임 중 '토이 스토리' 등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폭스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잇달아 인수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디즈니+)의 출범도 이끌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카카오, 헬스케어CIC 황희 대표

카카오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할 헬스케어 CIC(사내 독립기업)를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6일 설립되는 CIC 초대 대표에는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선임됐다.

황희 CIC 대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의 부사장을 맡아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원태 한진 회장, 오리엔트 에비에이션 선정 '올해의 인물'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아태지역의 유력 항공 전문매체인 오리엔트 에비에이션(Orient Aviation)으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오리엔트 에비에이션은 홍콩에 본사를 둔 아태지역 최초의 항공전문 잡지다. 1999년부터 매해 뛰어난 성과로 두각을 나타낸 아시아지역 항공업계 최고경영자를 선별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왔다.

조 회장은 글로벌 항공업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우한 지역 교민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전세기에 함께 몸을 실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객 부문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기단의 가동률을 높였다.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형 항공사 중 유일하게 6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감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로 잔뜩 움츠린 가운데, 대한항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유창욱 기자 woogi@

모더나 한국법인 설립 완료
대표이사 사장에 손지영 씨

mRNA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인 모더나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손지영 씨를 대표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손 대표는 모더나의 한국 내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임원진과 팀을 구성한다. 임직원 채용 절차는 진행 중이며, 사무실은 서울에 둘 예정이다.

손 대표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직전까지 씨에스엘베링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한국법인 설립과 신제품 출시를 지휘했다. 한국화이자에서 제약 경력을 시작해 한국로슈 항암제 부서장과 로슈 본사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리더를 거쳤다. 이화여대에서 약학을 전공한 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마쳤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SK그룹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신규 임원 선임 △김도연 △김연호 △손기복 △장원석

•**SK㈜** ◇신규 선임 △Digital 투자센터 임원 강상규 △Bio 투자센터 임원 김기일 △Digital 투자센터 임원 김대중 △세무담당 김봉균 △첨단소재 투자센터 임원 안성재 △SK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백민주

•**SK㈜ C&C** ◇임원 신규 선임 △AI/Data플랫폼그룹장 차지원 △금융Digital2그룹장 김남식 △전략기획담당 박호진 △재무담당 백승재

•**SK하이닉스** ◇임원 신규 선임 △김규현 △김상훈 △김진영 △김헌규 △문기일 △문양기 △박상범 △박성조 △박태진 △서재욱 △손수용 △손승훈 △신승아 △신현수 △심규찬 △안현준 △여동준 △오동연 △윤재연 △윤홍성 △이광옥 △이규제 △이재서 △이재준 △이현민 △장만영 △정해강 △정회삼 △지운혁

•**SK이노베이션** 〈임원 신규 선임〉 ◇SK이노베이션 △김진웅 I/E소재연구센터장 △임종호 Platform기술센터장 △권영수 ESG추진담당 겸임 이사회사무국장 △이우현 재무2담당 △박재한 구매담당 △이성용 IP전략담당 △김정민 경영전략담당 △선우성윤 Compliance담당 △김우경 PR담당 ◇마이써니(mySUNI) △김진택 mySUNI 구성원확대담당리더 △이주영 mySUNI SK경영경제연구소 PD ◇SK에너지 △배정한 미래Design Center임원 △홍양평 미래Design Center임원 △이주현 미래Design Center임원 △이선화 중부사업부장 △이재철 석유3공장장 △이종석 동력공장장 △윤보성 기계·장치·검사실장 △김범수 Reliability실장 △현재범 CLX문화혁신실장 △박정원 CLX대외협력실장 ◇SK지오센트릭 △이종혁 Green Biz추진 Group담당 △송화석 경영기획실장 △문광빈 G2 Tech.센터장 △조재성 Packaging 사업부장 ◇SK루브리컨츠 △허정욱 경영기획실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강경식 원유사업부장 △김태진 FO/Bunkering사업부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병인 신규사업개발실장 △강귀권 생산혁신실장 △박병철 SKBMP CEO △이재훈 기업문화실장 ◇SK인천석유화학 △홍욱표 경영혁신실장 △강덕영 설비실장 ◇SK어스온 △방선택 E&NV담당

•**SK바이오사이언스** △운영지원실장 김창신 △QC실장 김은정 △Industrial Operation 담당 임철호 △마케팅실장 유수안 △법무실장 유지현

•**SK네트웍스** ◇신규 선임 △김지은 ICT사업개발실장 △유봉운 재무실장 ◇전입 △이원희 Blockchain사업부장 ◇전출 △이영길 SK매직 △정우선 SK매직

•**SK케미칼** ◇임원 신규 선임 △김동률 첨단소재생산실장 △김학성 기능소재사업부장 △박정호 기반기술연구실장 △정재준 신사업개발실장 △구민회 경영지원실장 △안영일 마케팅2본부장 △유헌승 청주공장장

•**SK플라즈마** ◇임원 신규 선임 △채정훈 마케팅2본부장

•**SK매직** ◇임원 신규 선임 △기업문화실장 조장환 △마케팅운영실장 최재철 ◇사업부 이동 △SK매직서비스 대표이사 이철규 △고객가치혁신실장 박훈 ◇전입 △경영전략본부장 이영길 △BM혁신추진단장 정우선 ◇전출 △SK네트웍스 Blockchain사업부장 이원희

•**SK실트론** ◇신규 임원 선임 △박정훈 혁신지원담당 △양상현 QA실장

•**SK E&S** ◇임원 신규 선임 △공성운 인재육성본부장 △김일영 Asset운영본부장 △도의환 재무1본부장 △박기대 PassKey Investment Banking Services 담당 겸 Energy Solution Unit 담당 △박준수 기획본부장 △서경석 자율·책임경영지원실장 △염창열 에너지솔루션 사업지원실 담당 겸 EQ-TF 담당 △하형은 수소엔지니어링그룹장 △권기준 인도네시아 Country Office 담당 ◇자회사 대표 선임(예정)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문상학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김기영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박화영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 △박경식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SKC** ◇투자사 대표 △이재홍 SK넥실리스 대표 △김종우 SKC솔믹스 대표 △오준록 앱솔릭스 대표 ◇신규 임원 △박호중 SKC 진천공장장 △이동훈 SKC솔믹스 경영지원본부장

•**SK에코플랜트** ◇신규 임원 선임 △강도연 배터리 PD △김대원 PF담당 △김범준 연료전지사업담당 △김순종 미래전략담당 △남기철 IPO추진담당 △도훈 PR담당 △박덕섭 Air&Water사업담당 △박진용 Hi-Tech 사업관리담당 △백한솔 Eco Solution PD △선병학 EMC 경영지원실장 △송성진 배터리사업담당 △신창윤 베트남사업담당 △신현철 Eco Space 사업개발2담당 △오승환 수소사업담당 △원동진 Eco Solution 솔루션스담당 △원정석 Eco Space 사업관리담당 △유동관 Eco Space PD △이기열 그린디벨로퍼1담당 △이동걸 그린컴플렉스사업담당 △이성녀 ESG추진담당 △이승철 W프로젝트담당 △이승현 재무담당 △이정민 Gas&Power PD △이화미 품질환경담당 △장우진 해외디벨로퍼담당 △진병우 Hi-Tech 경영지원담당 △정재훈 Compliance담당 △최상원 반도체 PD △최은영 VC담당

•**SK가스** ◇임원 신규 선임 △김상봉 SK어드밴스드 PDH공장장 △유은철 인프라솔루션담당 △유창범 에코에너지 사업지원실장 △이득원 리테일 사업담당 △조병익 기술인프라본부 대외협력담당 △홍종범 LNG 솔루션담당

•**SK디앤디** △부회장 함윤성 △사장 김도현

•**SK디스커버리** △사장 안재현

•**SK바이오팜** 〈직책 보임〉 △신약개발부문장 맹철영 〈신규 선임〉 △항암연구소장박숙경

◆**특허청** ◇과장급 전보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정재훈 △자율주행심사팀장 조병도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승삼 △환경기술심사팀장 변상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주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부장 선임 △금융사업본부장 최병태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진열 △성과재무처장 김현민 △리스크준법실장 이수일 △도시재생심사처장 정대기 △서부PF금융센터장 강신균 △충북지사장 이철완 △서울동부관리센터장 김기태

◆**한국기계연구원** ◇본부장급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추준욱 ◇실장급 △환경시스템연구본부 청정연료발전연구실장 김민국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의료지원로봇연구실장 서준호

◆**환경재단** △미주담당 이사 구삼열

◆**보성그룹** ◇㈜한양 △부사장 유재욱 이상구 △전무이사 김선덕 염상훈 심왕기 최인호 △상무이사 간철균 이경진 △상무보 류연식 이덕행 전현호 최철욱 허성욱 ◇보성산업㈜ △전무이사 황준호 △상무이사 송지완 이철희 △상무보 나철현 이재상 최재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부사장 이병철 △상무보 장영우 ◇㈜파인비치 △상무보 주광석

◆**동아쏘시오그룹** ◇DMBio △사장 최경은 △상무보 권순환 ◇아벤종합건설 △사장 박윤이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무이사 백상환 ◇동아ST △상무 조규홍 △상무보 조상욱 ◇동아제약 △상무 김진구 △상무보 윤춘희 정성원 조진욱 ◇동아오츠카 △상무 최석암 △상무보 주재현 윤동수 ◇용마로지스 △상무보 류정하 박원순 ◇에스티팜 △전무이사 이현민 △전무 최석우 김경연 △상무보 최용락 이준원 김성원 ◇DA 인포메이션 △상무 안철수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최재근

부음

▲**정옥진** 씨 별세, **이종미·종은·종석·종필·종위**(재캐나다·목사) 씨 모친상, **김영권**(법무법인 지산 대표변호사)·**영일**(구례군 번영회장) 씨 장모상, **김희윤**(아시아경제 기자) 씨 외조모상 = 11월 2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62-713-5012

▲**이방수**(전 고성·합천·의령군수) 씨 별세, **이인영**(신라중 교감)·**소영**(동화구연가)·**상은**(숭실대 교수)·**지영**(서울메디케어치과원장)·**혜영·주영** 씨 부친상, **이정구**(㈜동현 전무이사)·**조송현**(인저리타임 대표)·**김상용**(중앙대 로스쿨 교수)·**이태호**(다세움건설 본부장)·**권민현**(SK하이닉스 팀장) 씨 장인상, **정수정** 씨 시부상 = 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4시, 010-9318-9217

▲**최동규**(전 강원연구원장) 씨 별세, **최윤석·은석** 씨 부친상 = 1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4일 오전, 031-219-6654

시론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김 재 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당선자 비서실'이 움직이고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는 바쁜 시간이 전개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장 무게를 가질 때가 이 시기이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법령과 규정에 없는 '당선자 뜻'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이 춤을 추는 시기이다.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지난 정부와는 뭔가 달라지고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직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잘못이나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기대를 크게 가진다. 최근 모 부처 차관이 차기 정부 공약사항을 준비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안타까운 일이나 공직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선 현 정부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새 정부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5년 임기제 대통령제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다.

대통령 후보자의 정부 기능과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중요하므로 후보자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대통령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은 당선 후 5년 내내 해당 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고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소속 부처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는 특정 부처 정책과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늦다. 부처 기능 개편이나 통폐합 등이 논의되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다. 정부 업무가 형식적 집행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기 어렵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당선자 비서실'이 움직이고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는 바쁜 시간이 전개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장 무게를 가질 때가 이 시기이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법령과 규정에 없는 '당선자 뜻'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이 춤을 추는 시기이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고위직 인사와 맞물려 '당선자 뜻'을 빌린 측근들의 인사 횡포도 종종 일어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일어나고,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이라 웬만한 행위는 그냥 넘어간다. '당선자 뜻'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를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한다. 인수위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다.

김영삼 정부가 끝나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9일 이후 이듬해 2월 25일 취임하기까지 인수위 기간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너도나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농산물 유통 개혁안을 보고했다. 주무부서인 농림부를 제쳐두고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안을 보고한다고 했다. 차기 농림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유통개선 자료를 요청했다. 여러 곳에서 유통개선대책 요청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료는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이었던 필자가 만들었다. 당시 농림부 장관인 이효계 장관도 유통 개혁 대책을 보고하지 못했다. 주무 부처를 제쳐두고 타 부처가 나서서 농산물 유통 개혁안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다.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농촌 진흥청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농진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농진청 기능 개편으로 돌아섰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무게가 실린다. 거기에 주변 세력이 들러붙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야기한다. 자칫하면 대통령 5년의 힘이 초기에 다 빠져버린다.

미국 농무부(USDA)는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됐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 농무부를 설립하고 이름을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라고 했다. 농무부는 농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부처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주립대학에 무상으로 국유지를 제공해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한 토지공여대학(land grant university)법등 많은 법률을 제정해 세계 최강의 미국 농업 기초를 마련했다. 미 농무부는 설립한 지 250년이 됐지만 지금도 농무부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부,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었다. 부처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순조롭게 간 이유도 정부조직에 큰 손을 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조직과 기능이 '당선자' 또는 '당선자 측근'의 의도대로 개편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에 그치고 중지를 모아 공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대방로

주민 참여·소통·체감의 스마트시티 조성

한 경 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5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도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인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미 U-시티(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았다.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말한다.

최근 정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곳을 선정하여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공공지원하게 된다. 이미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선정했다.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2018년 2월에는 서울, 제주, 전남 나주 등 12개 지자체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개별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기성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6월 대전, 충북 등 4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도시문제 해결형과 비즈니스 창출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2018년 7월 대구와 경기 시흥이 선정되었다. 2019년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는 인천, 광주, 대전 등 6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존의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0년부터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대규모의 시티 챌린지, 중규모의 타운 챌린지, 소규모의 솔루션 챌린지 사업으로 개편했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 전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솔루션 챌린지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처럼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의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여건은 인프라 중심, 기술 주도에서 데이터 중심, 주민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스마트시티에는 기술보다 중요한 도시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개방적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주민생활 및 도시관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민 참여와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도시기반,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줄리앤 무어 명언

"실수가 중요한 것처럼 결함도 중요하다. 당신은 실수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완전함을 통해서만 진짜가 될 수 있다."

미국, 영국의 배우. 알츠하이머 환자를 연기한 영화 '스틸 앨리스'로 아카데미상을, '맵 투 더 스타'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영미권 주요 배우상은 물론 세계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제패한 세계적인 배우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60~.

☆ 고사성어 / 풍성학려(風聲鶴唳)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라는 뜻. 겁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이나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전진(前秦) 왕 부견(苻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도 비수(淝水)에서 동진(東晉)의 명장 사현(謝玄)에게 대패하고 도망갈 때,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추격병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겁에 질린 군사들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風聲鶴唳]'만 들려도 동진의 군사가 뒤쫓아온 줄 알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한다. 출전 진서(晉書) 사현재기(謝玄載記).

☆ 시사상식 / 제론테크놀로지 (Gerontechnology)

노인학(gere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노인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건강·이동·언어·여가·노동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노년층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신조어 / 빠태

'빠른 태세 전환'의 줄임말. 젊은 세대들이 교우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에 대처하는 처세술로 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선택받지 못한 상장사 55.8%

박 상 재 / 자본시장부

"스무 명 남짓한 인원으로는 엄두도 못 냅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기자가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커버리지' 종목이 한정적이라 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기가 있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국한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투자자들에게 기업분석을 통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망한 곳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발굴하고 적정 가치를 매겨 주가를 예측하는 게 주된 업무다. 하지만 분석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 종목은 상장회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커버리지 종목은 104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943개)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적은 수다. 전체 상장사(2350개)의 44.2%에 불과하다. 리서치센터 커버리지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력과 예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리서치센터 항변이지만 투자자들의 경고를 흘려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 업체에 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55.8%(1309개)의 상장사 중에서는 또 다른 테슬라가 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혁신 주도주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분석보고서가 대형 상장사에 치우쳐있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전체 보고서 1만 5992개 중 발행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2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LG전자(152개), SK하이닉스(144개), 현대차(143개), 엔씨소프트(141개), 카카오(140개) 순이었다. 상장된 중소형사 중에선 1년에 보고서가 단 한 건 나온 곳이 수두룩하다. 투자자에게 유망 종목을 발굴해 알려주기보다 '누구나 알 만한' 기업에만 집중하는 증권사 태도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다 보니 투자 기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처럼 대형 종목 쏠림 현상은 리서치센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덧붙여 커버리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증시에 대거 뛰어든 투자자를 잡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sangjae@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현 영 권 발카리 대표

"실물가치 바탕의 디지털통화, 당장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국민에 환원시키겠다는 제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으로 가상자산의 입지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 다음 정권은 신산업 발전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체 발카리를 운영하는 현영권 대표는 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이 후보가 운을 띄운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실현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이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현 대표는 각 당에 가상자산 정책 관련 의견을 건네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현 대표는 "예를 들어 개발이익이 1000조 원 규모이고 비용이 250조 원인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 전 국민에 500만 원씩 투자를 받으면 개발을 시작할 250조 원이 마련된다. 이를 국민주처럼 가상자산 코인으로 만들고 독자적인 거래소를 만들면, 미래가치인 1000조 원 정도의 가상자산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부터 블록체인청이 주체가 돼야 한다. 여기서 투자를 하지 않아 남는 구좌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에 우선구매권과 대출 지원을 하면 투자액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현영권 발카리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실현을 위해선 부동산 관련 법 개정과 이를 주관할 블록체인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블록체인청 주체로 부동산 개발
국민주처럼 투자받아 코인 거래
개발이익만큼의 가상자산 생겨

美, 달러 지키려 평가절하하지만
민간 주도 디지털화폐 선점 나서
中 국가 중심 CBDC는 한계 명확

기술 이미 돼있다, 남은 건 입법
이재명 후보측 관련 구상 수용
2030 흡수 대선 승리카드 될 것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유력 후보

그가 언급한 부동산 개발은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 경선 때 이를 처음 제안했던 박용진 의원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1000조 원은 김포공항이 이전한 부지에 마곡지구 분양가를 기준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했다고 가정해 산정한 개발이익 금액"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후에 여러 곳에 신도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독자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목적은 산업 혁신과 디지털 기축통화를 가리켰다.

현 대표는 "개발이 완료돼 1000조 원이 들어오면 노후된 광케이블을 신형으로 깔고 6G 개발에, 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에 투자할 수 있다. 광케이블 같은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도 새로 깔아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이것도 자산이니 같은 방식으로 상장하면 외국에서도 투자가 들어오면서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계속 코인의 가치가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계는 달러 지위 위협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간 주도로 디지털 화폐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SNS도 대부분 미국에 적을 두고 메타버스가 활성화하면 이른바 디지털 기축통화의 패권은 미국이 점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기존 주요 가상자산과 맞먹는 규모의 신흥 가상자산을 내놓으면 미국과 패권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국의 '발버둥'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과도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대표는 "미국은 민간 주도로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이는 블록체인과 엮인다. 디지털 금융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거다. 중앙집권적인 중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민간 주도 탈중앙화를 인정할 수 없어서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게 CBDC다"며 "하지만 이걸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은 CBDC와 전혀 다르고 미국과 경쟁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CBDC가 아니고 디지털 기축통화를 목표로 한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말 그대로 가상화폐 발행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처리속도 개선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은 온전히 화폐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다. 금과 같은 원자재 개념의 자산으로서 변동 가치를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공유해 특정 주체가 보안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위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순간에도 수만 번 이뤄지는 거래들을 제때 복제·공유할 수 있는지다. 관련해 현 대표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시작은 게임이다. 노력의 대가로 아이템을 얻는데 자꾸 해킹을 당하니 게임사가 고민하게 되고, 2008년에 분산원장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봤다. 너무 느리니까. 초당 7번(TPS)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게임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작업인증을 해서 반대급부로 날아오는 인증을 코인이라 부르면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은 27TPS 정도이고 몇천 TPS까지도 됐다"며 "그런데 이런 속도로는 거래 한 번에 30~40초나 걸려 민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쓰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고속 블록체인을 연구했고 CPU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를 따로 두듯이 블록체인칩(BPU)을 만들어 초당 5만 TPS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의 전설' 액토즈소프트 창업자

현 대표는 우리나라 1세대 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을 제작한 액토즈소프트의 창업자다. 블록체인의 기원이 게임이라는 점부터 짚은 배경이다. 관련해 현 대표는 "게임 때문에 블록체인 쪽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보안으로 넘어가 관련 업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구상과 기술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 대표는 남은 건 입법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부동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 대표가 강조하는 건 블록체인청 설립이다. 부동산 개발, 가상자산 발급, 거래소 마련까지 모두 주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 대표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에서 블록체인청이 개발과 발행의 주체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지만 정부에 임면권이 없고 재단 형태로 해 이사회가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 사실 블록체인청은 지난해부터 건의해왔다. 그러다 선대위에서 블록체인청 입법 내용을 물어서 사비를 들여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전달했다"며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청을 만들어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걸 올해 안에 입법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공약이 아니라 당장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30세대를 확실히 데려오려면 코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까지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 카드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사설

성장 둔화에 물가 급등, 오미크론 불안까지 가중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치고 11월 소비자물가는 3.7%나 급등했다. 물가 오름폭은 커지는데 소득이 뒤따르지 못해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0.7%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민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기 대비 0.3%라고 발표했다. 1분기 1.7%, 2분기 0.8%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코로나 충격에 역성장을 보였던 작년 2분기(-3.2%) 이후 가장 낮다. 실질 GNI도 작년 2분기(-0.2%) 이후 다시 마이너스다.

3분기중 수출이 1.8% 증가해 호조를 보였지만, 민간소비(-0.2%)와 설비투자(-2.4%) 및 건설투자(-3.5%) 등 내수의 감소가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더 가라앉을 우려가 크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4% 성장은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밝힌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로 1년전보다 3.7% 치솟았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고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35.5%) 급등했고, 농축수산물(7.6%), 공업제품(5.5%), 외식 등 개인서비스(3.0%) 가격도 모두 올랐다.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품목을 모아 따로 계산한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의 경우 5.2%의 상승폭을 보였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도 길어지면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에도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이 물가상승을 일부 제약할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세를 끌어내리게 된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물가만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커진다. 지난 1일에 이어 2일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넘게 발생했다. 전파력 높으면서 백신을 무력화하는 오미크론까지 번진다. 하루 확진자 1만 명도 시간문제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역강화로 경기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은은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막대한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의 부담과 고통이 커진다. 물가 폭등과 금리 상승에 따른 민생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지금 정부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역량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한 컷

겨울왕국

절기상 대설(大雪)에 한발 앞서 고지대는 겨울왕국이 됐다. 전북 덕유산 설천봉이 상고대로 절경을 이뤄 겨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K telecom for All
SK텔레콤, 'T우주'로
5천만 고객 사로잡는다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구독 비즈니스 지각변동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글로벌
새로운
만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
T우주
PARIS BAGUETTE
BOULANGERIE
TMAP
FLO
Google One
emart
wavve
11
첫 번째 T우주의 탄생을 알리는 론칭 편은 일상에서의 익숙한 생활에 지쳐 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모습
사된 구독 제품들이 T우주로 수렴되며 구독 빅뱅을 일으키는 장면 역시 론칭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느껴진다. 특히, 2분 30초 길이의 T우주 론칭편 풀 버전은 일방적으로 노출되던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찾아보는 광고로의 변화까지 꾀하고 있다.